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미국의 송어낚시』에 나타난
순수 이상주의와 자연 회복의 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姜 仁 姬

2013年 8月



『미국의 송어낚시』에 나타난 순수 이상주의와 자연 회복의 꿈

指導教授 卞 鐘 民

姜 仁 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6月

姜仁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3年 8月

<국문초록>

『미국의 송어낚시』에 나타난 순수 이상주의와 자연 회복의 꿈

姜 仁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작품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 단지 낚시를 던져 송어를 잡는 서정적 이야기가 아니다. 1960년대 미국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던 『미국의 송어낚시』(*Trout Fishing in America*, 1967)는 반문화의 아이콘으로 인식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런 공감의 원인으로는 이 작품을 통해 브로티건(Richard Brautigan, 1935-1984)이 당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고발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작품의 내용은 사실과 상상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 그것은 브로티건의 페르소나인 'I'의 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작가의 실제적 삶의 궤적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샌프란시스코의 워싱턴 스퀘어이다. 그곳에는 프랭클린의 동상이 그의 후세들을 내려다보며 “근검해라. 성실해라. 그러면 물질적 성공·명예·권력은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표지사진 속 동상 앞에 선 브로티건은 “우리를 보세요. 당신이 말한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약속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라고 말하며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사실 프랭클린 동상 주변에서 'I'는 무료배식을 위해 물러드는 배고픈 사람들, 예술가임에도 상상력의 나래를 펴기보다는 술에 의존해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을 본다. 게다가 그의 계부는 카네기의 강철 송어에 완전히 빠져있다. 그걸 소유하지 못한 그는 술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산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구가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과 부의 편중으로 소수의 가진 이와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다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빈곤 상태에 빠져 산다. 이런 빈곤의 치유를 위해 자연에 기대보려 하지만 자연 역시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유가 이 작품의 마흔세 번째 이야기인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The Cleveland Wrecking Yard)에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알리는 브로티건의 풍부한 상상력이 아낌없이 펼쳐진다. 무엇이든 돈만 되면 상품화하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클리블랜드 중고품하치장에서는 온갖 자연물마저 일정 단위로 잘려져 겹겹이 쌓여진 채 누군가 사가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따라 자연마저 지배하려는 인간욕망의 부조리에 대한

※ 본 논문은 201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고발이다.

47개의 각기 다른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된 『미국의 송어낚시』는 하나의 소재이자 주제인 ‘미국의 송어낚시’가 관통한다. ‘미국의 송어낚시’는 변신을 거듭한다. 그리고 변신의 끝은 ‘I’가 여행을 하며 찾고 있는 ‘송어하천’과 만나게 된다. 송어하천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I’의 목적은 미국의 순수 이상주의와 자연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의 여정이다. 영혼의 해방을 회구하며 간직한 종교적 이상주의, 노력의 대가로 누구나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다는 성공신화의 꿈, 이상향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프런티어의 꿈, 언제나 옆에 있을 것 같은 대자연의 목가적 풍경이야말로 이 소설을 통해 브로티건이 회복시키고 싶은 미국의 꿈의 원형들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이런 꿈의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송어낚시가 방황하며 고뇌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브로티건은 리얼리티가 아닌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꿈을 회복시켜 간직하고 싶어 한다. 요컨대 “창조적 상상력으로 현실 속에서 미국의 꿈을 이루자”라는 것이 이 소설이 전하는 궁극적 메시지라고 하겠다.

목 차

< 국문초록 >	i
I. 서 론	1
II. 이상과 현실	6
III. 자연과 문명	22
IV. 절망과 꿈	35
V. 결 론	48
Bibliography	52
Abstract	55

I. 서론

『미국의 송어낚시』(*Trout Fishing in America*, 1967)는 송어낚시를 위한 여행을 계속 떠나야 하는 작가 자신은 물론 미국인들의 정신적 고뇌와 현대문명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치는 일종의 고발소설이다. 김성곤은 “문학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학과 생태학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작가가 『미국의 송어낚시』의 작가 리처드 브로티건(Richard Brautigan)”이라고 소개하며, 이 작품이 1960년대 젊은이들에게 경전처럼 읽힌 작품임을 강조한다.²⁾ 이 소설은 1967년에 출판되었지만 실제로 집필이 완성된 시기는 1961년 여름으로 브로티건의 첫 작품이다. 시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브로티건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작가 중 한 사람으로 1960년대를 풍미하던 반문화(Counterculture)의 아이콘이 된 것은 『미국의 송어낚시』를 통해서이다.

브로티건은 1935년 워싱턴 주의 타코머(Tacoma)에서 출생했다. 그의 친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정을 버렸고, 그는 불안한 가정환경에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브로티건은 문학과 관련한 학문적 수업을 대학에서 받을 기회는 가지지 못했으나, 스무 살 무렵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로 이주하면서 비트시인(Beat Generation Poets)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스비치(North Beach)를 중심으로 비트운동(Beat Movement)³⁾이 주요 흐름을 타고 있었고, 브로티건은 몇몇 비트시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브로티건의 작품세계는 비트세대(Beat Generation)의 이념이나 그들이 추구한 가치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1960년대의 미국은 기술문명의 발달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자본주의 역사상

2) 김성곤, 『미국 현대문학』 (서울: 민음사, 1997), p. 463.

3) 긴즈버그(Allen Ginsberg), 코르소(Gregory Corso), 펠링케티(Lawrence Ferlingetti) 등의 시인과 버로우즈(William Burroughs)와 케루악(Jack Kerouac)등의 소설가들의 문학운동이다. 대표작으로 긴즈버그의 『아우성』(*Howl*, 1956), 케루악의 『길에서』(*On the Road*, 1958)를 꼽는다. 이들에 의해 1960년대 히피시대가 열리게 된다.

4) 비트 작가나 시인은 체도권의 도덕적·문화적 가치에 대항하여 마약, 탈선적 성 생활, 재즈 등 퇴폐주의적인 경향을 드러내보였으며 반체제·반정치·반지성 등을 표방했다. 그들은 미국의 사회체제에 순응하며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미국인 대다수를 ‘스퀘어’(square)라고 불렀고 이에 맞서는 자신들을 비트닉이라고 불렀다.

최고의 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집단주의적 윤리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심리로 사회체제에 순응적인 소시민적 보수주의 기조가 이어진다. 텔레비전·신문·영화 등의 대중매체는 소비자, 즉 미국인의 삶의 획일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업합병을 통한 거대복합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일부에게 경제력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온다. 또한 세계 공산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극단적 반공주의로 인해 경직되고 억눌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사회·정치적 저항의식을 불러일으켜 히피문화와 같은 반체제, 반문화 운동을 촉발한다.

예술적 측면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미국사회 전반에서 탈중심화, 탈정전화 경향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다양한 형식의 실험정신과 유희적, 감성적 태도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데 브로티건의 『미국의 송어낚시』 역시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잘 드러낸다. 비교적 간결한 짧은 문장구성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하나의 소설임에도 아귀가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퍼즐조각 맞춤처럼 마흔일곱 개의 짧은 이야기들이 파편적으로 이어진다.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장소나 소재, 등장인물이 시시때때로 바뀌는가 하면, 은유와 상징적 표현들로 인해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난해함에 대해 천승걸은 “브로티건이 작품에 표현한 파편과 같은 단편 이야기들의 무질서가 바로 그 자신이 현대 세계를 파악한 리얼리티”⁵⁾라고 파악한다.

또한 불확정성(indeterminacy)과 자체반영성(self-reflexivity)을 기초로 하는 반사실주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특징과 절대적이거나 획일적인 가치 그리고 통제적 지배문화에 대해 의인화 기법을 빌어 우화형식으로 비판한다. 『미국의 송어낚시』에서 ‘미국의 송어낚시’는 예상치 못한 변화된 모습(강철, 사람, 장소, 갑옷, 미끼, 펜촉 등)으로 실마리 없이는 명확히 이해하기 곤란한 모습으로 이야기들 속에 등장한다. 브래드베리(Malcolm Bradbury)는 브로티건의 작품에서 “미국의 순수한 정신으로 나아가고 또 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실험적 소설형식을 사용하는 노력”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송어낚시』 자체가 계속 변

5) 천승걸, 『미국문화와 그 전통』 (서울: 서울대학교, 1985), p. 225.

신을 거둬하는데, 때로는 장소나 사람(‘미국의 송어낚시 쇼티’)이 되다가 상상력을 구사하는 독립적 근본 원리”라고 말하며, “세계의 견고함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⁶⁾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병주는 이 소설이 “사회소설”이며, “반사실주의적인 우화형식”으로 문명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⁷⁾

『미국의 송어낚시』는 미국문학의 한 흐름을 잇고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화로서의 미국의 꿈(American Dream), 젓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인의 종교적 이상주의의 꿈, 그리고 광활한 미개척지인 서부로의 변경개척의 역사를 이룬 프런티어 정신,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전쟁을 불사해가며 이룬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향한 꿈이 미국문학의 전통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⁸⁾ 이러한 미국문학에서 미국의 꿈을 담은 미국문학의 대열에 목가적 자연에서의 송어낚시의 꿈을 탐색하는 『미국의 송어낚시』를 넣을 수 있다. 슈미츠(Neil Schmitz)는 『미국의 송어낚시』가 헤밍웨이(Hemingway)의 『거대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강』(*The big Two-Hearted River*)의 전쟁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를 달래는 닉 아담스(Nick Adams), “월든 호수”(Walden Pond)에 밤낚시를 하는 쏘로(Henry David Thoreau), 미시시피 강에서 메기를 낚는 허크(Huck)와 짐(Jim) 등의 이미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한다.⁹⁾

이 소설에서는 소재가 다른 이야기들이 내용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그 단편적 이야기들의 구조적 밀접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송어낚시』를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송어낚시’라는 소재는 정형화된 현대인의 삶에서 물질보다는 자연과의 소통을 통한 인간성 되찾기와 관계의 회복이란 주제를 담고 있다. 칼(Karl Frederick R.)은 『미국의 송어낚시』에서의 “송어낚시”(trout fishing)를 “사라져가고 있는 미국의 목가적 자연”(vanishing pastoral America)의 은유라고 설명한다.¹⁰⁾ 다시 말해 ‘송어낚시’ 자체가 현시대에서의 삶을 더 낮게 만드는 하나의 이

6) Malcolm Bradbury, *The Modern American Novel* (Oxford: Oxford UP, 1984), pp. 169-170.

7) 박병주, 「『미국의 송어낚시』에 나타난 생태의식」, 『현대영미소설』 9.1 (2002), p. 87-88.

8) 김성근, 『탈모더니즘시대의 미국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1989), p. 337.

9) Neil Schmitz, “Richard Brautigan and the Modern Pastoral,” *Modern Fiction Studies* 19 (1973), p. 122.

10) Karl Frederic R., *American Fiction 1949-1980* (New York: Harper & Row, 1983), p. 64.

상으로 볼 때, 이 소설의 주제를 목가적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는 새로운 미국인의 꿈의 탐색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꿈이 지닌 개념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흔히 이해되기로는 약속의 땅 미국에서 근면, 성실, 정직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성공신화(Dream of Success)의 꿈으로 이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물질적 성취를 통한 영혼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1620년 이후 시작된 초기 청교도 이민자들의 꿈과는 거리가 있다. 청교도들이 약속의 땅 미국에서 이룩하고자 했던 꿈은 물질적 성취가 목표가 아닌 마음껏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들에게 미국은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한 에덴동산을 대신하는 곳이었다. 훗날 이들의 꿈은 프랭클린식 성공신화와 대비되어 에머슨의 순수한 이상주의로 정리된다. 이토록 미국의 꿈이 지닌 물질 대 정신의 두 갈래 성격과, 그것들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이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스피러(Robert E. Spiller)는 미국문명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순수 이상주의와 거친 물질주의의 부조화스런 혼합”¹¹⁾의 기미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브로티건이 그리는 현재 미국의 모습에서는 초기 청교도 이민자들의 눈에 비친 새로운 에덴동산(New Eden)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순수 이상주의 대신 물질적 성공신화가 자리 잡았지만, 그 결과는 허상에 불과하고, 초기 이민자들을 마음 설레게 했던 그 아름답고 광활했던 자연의 모습도 대부분 파괴되어 송어낚시의 꿈을 펼쳐볼 곳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로티건이 『미국의 송어낚시』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미국의 이상적인 모습, 예컨대 순수 이상주의,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미지의 이상향을 찾아 끊임없이 꿈을 키우는 개척정신의 세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미국의 조상들이 이룩하고자 소망한 이상적 국가상과 물질주의로 대표되는 프랭클린식 이상주의를 통한 미국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짚어보고, 제3장에서는 낙원의 모습을 간직한 목가적 자연에 둘러싸인 조상들의 모습과 작가의 어린 시절의 초록빛 가득했던 자연을 향한 동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 미국의 현대문명이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웠

11) Robert E.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 5.

던 목가적 모습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절망을 낳는 다소 비현실적인 사건에 의해 자명해진 인간 정신의 파괴와 자연의 훼손에 대한 작가의 경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브로티건의 페르소나가 그러한 절망적인 경험과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송어하천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II. 이상과 현실

정치·경제·사회·종교적 이유로 신대륙을 찾아 떠난 초기의 유럽 이주민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나름의 정체성을 갖추며 자리를 잡았다. 초기 정착민인 청교도 순례자들이 신세계에서 꿈꾸던 이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본국에서 받았던 종교적 박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둘째는 계급과 계층의 사회적 제약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들의 “약속된 천국”에서의 이상실현을 위해 굳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근면과 인내의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다. 한편 그들에게 물질적 성공은 신이 내려주는 은총으로 간주되었다. 디글러(Carl N. Degeler)의 다음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물질적 추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파악된다.

청교도적 사고로 기독교인의 직업적 소명은 중요한 개념이다. 그것은 종교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청교도들에게 기독교인이 갖는 직업은 신을 위한 봉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¹²⁾

경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상낙원의 건설을 위해 북아메리카 동부의 황야를 개간하며 이상적 삶의 터전을 일군 청교도들의 뒤를 이어 미국을 하나의 이상주의 국가로 세우고자 한 미국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있었다.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명시된 자유·평등·행복의 추구를 주장하며 영국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때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앙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기에 청교도인의 종교적 이상주의는 퇴조될 수밖에 없었고, 곧 계몽주의적 사고가 미국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청교도들이 꿈꾸었던 순수한 이상주의는 물질적 성취를 통한 성공신화의

12) Carl N. Degeler, *Out of Our Pas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0), pp. 6-7.

꿈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양병탁은 새로운 지상천국, 즉 새로운 에덴의 건설이라는 유토피아적 꿈이 시대변천을 겪으며 ‘제2의 지상낙원’의 건설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꿈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한다.¹³⁾

이어진 서부개척(American Frontier) 시대 변경의 확장은 개인의 능력과 도전 정신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개인의 도전과 노력만으로 부와 명예의 성취가 가능함을 믿은 많은 낙천주의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이들에 의해 미국이 약속의 땅, 기회의 땅으로 공고히 다져지는 동안 변경은 서부 끝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자리 잡은 프런티어 정신(Frontier Spirit)은 미국 이민의 역사를 반영하며 동시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개개인의 가치가 존중받는 미국의 문화적 전통도 자리매김 되었다. 이렇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도덕적 이상주의와 누구나 노력하면 부와 명예를 성취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를 동시에 추구했던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은 독립전쟁(The American Civil War)과 서부개척의 역사를 이끌며 단기간에 미국을 세계최강의 국가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조상들이 간직하고 추구했던 미국적 이상국가의 모습에는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움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존엄성을 뒷받침해주는 정치·경제·종교·문화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이주정착민들에게 있어 광활히 펼쳐진 척박한 황무지를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고난의 시간은 마음 속 깊이 품은 유토피아적 이상 실현의 꿈이 있었기에 극복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조상들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노력에 따른 괄목할만한 성장발전에도 불구하고 브로티건의 눈에 비친 현실 미국의 모습과 미국인의 삶의 형태는 조상들이 물려준 이상국가의 유산과는 괴리를 보인다. 그래서 브로티건은 과거 조상들이 품고 이루려했던 이상적 국가의 모습과 현실의 미국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적 이상과 삶의 현실을 병치시켜 미국사회를 풍자하고 고발한다.

작품의 첫 번째 장인 “미국의 송어낚시 표지”(The Cover for Trout Fishing in America)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13) 양병탁, 『미국문학서설』 (서울: 탐구당, 1984), pp. 49-50.

미국의 송어낚시 표지는 늦은 오후에 찍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스퀘어의 벤자민 프랭클린 동상의 사진이다.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년)은 돌로 만들어진 가구가 들어있는 집 처럼 생긴 받침돌 위에 서있다.¹⁴⁾

사실 표지사진은 프랭클린의 동상 사진이라기보다는 그저 브로티건 자신이 한 여성과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송어낚시』 첫 말머리는 전경에 위치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뒷배경의 프랭클린 동상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이끈다.

경제적 부와 성공신화의 표본인 프랭클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Washington Square Park)의 이름에서 스퀘어(square)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프랭클린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프랭클린은 부모로부터 청교도적 삶의 전통—근검, 성실, 검약 등—을 이어받아 가난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다. 그는 인쇄업자, 과학자, 발명가, 작가, 출판업자, 정치인 등 여러 직업을 통해 사회적 성공과 부를 성취한 자수성가형 인물의 대표적 표상이다.

그는 『자서전』(Autobiography)¹⁵⁾에서 도덕적으로 보다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3가지 덕목(Goals of Virtue)을 제시했다. 프랭클린은 그 덕목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으며, 동시에 공동체 삶에서 모두가 유용하게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그는 하루 생활 중에 그 덕목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시 말해서 프랭클린은 물질적 성취와 명예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 이것은 개인 삶의 개선을 통해 공공에 유용함을 취야한다는 사회개혁적인 노력이기도 했다.¹⁶⁾

프랭클린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 물질적 성취를 통한 꿈의 실현을 서론에서 언급한 스피러의 용어를 빌어 거친 물질주의(crude materialism)라고 할 때, 그 반

14) Richard Brautigan, *Trout Fishing in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0), p. 1. 이하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를 명시기로 한다.

15) 『자서전』(Autobiography)에 관련한 내용은 상당부분 19세기 영어권 문학Vol.16 No.2에 실린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과 미국혁명> (김은형, pp. 29-60)을 참고하였음.

16) 로드 W. 호턴, 허버트 W. 에드워즈, 『미국문학사상의 배경』, 박거용 옮김 (서울: 터, 1991), p. 90.

대의 개념이 바로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순수 이상주의(naive idealism)이다.¹⁷⁾ 에머슨이 체계화시킨 순수 이상주의는 미국의 꿈의 본질로 청교도적 이상주의를 일컫는다. 이 순수 이상주의는 물질적 성취를 통한 자유가 아니라 신의 섭리가 담긴 자연 속에서 성령과 교류하며 독립적으로 자존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

미국적 정신의 대표자로 현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에머슨은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운동의 선구자이자 상징적 존재이다. 에머슨은 사회 주류에서 행해지는 사업, 정치와 같은 모든 사회적 활동 중에서 사회를 움직여 가며 일하는 남자들의 활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지고한 가치를 보장해 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의 ‘물질주의에 대한 대항’ 정신의 표현이다.¹⁸⁾ 에머슨은 인간에게 감각적 경험과 사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바로 모든 창조물과 생물에도 들어 있고 자기 안에도 존재하는 보편적 영혼인 ‘대령’(Oversoul)에 의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또한 그는 자연은 신의 뜻이자 섭리의 구현이며, 인간은 스스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삶을 탐색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물질적 성취를 통한 자기 발전과 정직과 근면에 의한 개인의 성공신화를 강조하는 프랭클린식의 미국적 꿈을 에머슨이 말하는 ‘순수한 이상주의’와 견주어 파악해 보게 되면, 프랭클린식의 물질적 성취를 꾀하는 개인은 보다 더 많은 물질을 취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정신적 내면 탐구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 결과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고, 현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본능적 욕구충족에 더 매달리게 된다. 결국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결핍증상이 드러날 것이다.

브로티건은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 높이 우뚝 세워진 석상 위에 근엄한 자세로 서 있는 프랭클린의 동상을 중심 모티브로 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프랭클린이 후대에게 개인의 물질적 성공과 명예로운 삶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제시한 미국의 모습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7)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p. 5.

18) 김정훈, 「The Great Gatsby에 나타난 에머슨적 American Dream의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pp. 12-18.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손에 쥌 수 있다는 듯 워싱턴 스퀘어 공원의 프랭클린 동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에는 사방으로 “WELCOME”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환영의 말은 이주민들에게 미래 삶의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다. 신두호는 프랭클린이 미국의 꿈, 미국적 낙관주의, 그리고 미국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말한다.¹⁹⁾ 그러나 워싱턴 스퀘어를 찾는 현재의 미국인들 앞에 “돌로 만들어진 가구가 들어 찬 집”(a house containing stone furniture)(1)을 가지고 있는 프랭클린의 상징성은 허구이며 허상이다. 개인의 유용한 삶을 통한 풍성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을 지향했던 프랭클린의 시대는 자본주의의 태동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랭클린 동상 앞에서 목격되는 자본주의적 사회에 속한 현재의 후손들의 모습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삶을 살기 이전에 자신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수단도 소유하지 못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질서가 완전히 자리한 현재를 사는 후손들의 삶은 의·식·주의 해결을 염려하며 그날그날을 살아가야 하는 하루살이 모습이다. 오후 다섯 시, 프랭클린의 동상이 있는 워싱턴 스퀘어 주변에 풍요와 성공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끼니를 때우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가 나타난다. 광장 맞은편의 교회에서 내어주는 샌드위치 배급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오후 다섯 시 교회의 타종 없이는 교회가 있는 길 건너편으로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다. 이 빈곤한 사람들의 모습은 프랭클린이 보여 준 삶의 방식이나 성공적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더구나 워싱턴 스퀘어 앞 교회에서 배급받은 샌드위치 속을 열어 보면 고작 시금치 한 잎이 전부이다. 샌드위치를 받아든 화자 친구는 설레던 기대는 사라지고 실망감으로 가득하다.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회의감을 품었을 비참한 이 친구의 모습에 바로 이어서 뜬금없이 카프카의 말을 인용한다. “프랭클린의 『자서전』 (*Autobiography*)을 읽고 미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 사람이 카프카였던가?... ‘나는 미국인들이 건강하고 낙천적이어서 좋아’라고 말한 게 카프카였지”(Was it Kafka who learned about America by reading the

19) Doo-ho Shin, 「*The Aesthetics of Indeterminacy: A Meeting Ground Between Postmodernism And Eastern Mysticism And Selected Novels By Tom Robbins, Richard Brautigan, And Rober Pirsig*」,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p. 294.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Kafka who said, “I like the Americans because they are healthy and optimistic”)(2)라며 건강하고 발전적인 미국인상으로 의미심장한 여운을 주면서 소설의 첫 편을 마무리한다. 사실 브로티건은 프랭클린의 희망찬 성공의 약속과 미국이 갖는 낙관적 이미지의 이면에 존재하는 빈곤의 문제와 이상주의적 국가의 모습과 거리가 먼 미국의 현실을 풍자하고 조소한다.

이 소설의 화자 ‘I’는 1942년 여름 어린 시절에 술에 취한 계부로부터 ‘송어낚시’에 대해 처음 듣게 된다. 그러나 화자는 계부의 ‘송어낚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시 세계는 2차 대전의 와중이었으며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직접적 피해를 입기 보다는 수혜를 입은 나라였다. 그 이유는 당시의 세계대전이 대공황의 여파에 시달리던 미국을 철을 필요로 하는 군수품 생산을 통해 경제난을 타계하도록 도왔으며 더 나아가 세계경제 대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계부가 화자에게 들려준 ‘송어낚시’는 바로 개인과 국가에 막대한 이익과 번영을 안겨준 소중한 지능 있는 강철에 대한 것이었다.

아마 강철 송어. 송어로 만든 강철. 주물소와 뜨거운 열 역할을 하는
깨끗한 눈으로 덮여있는 강이다.
건물, 기차 그리고 터널로 만들어지는 송어로 된 강철.
앤드류 카네기 송어다! (3)

계부의 마음속은 온통 “강철 송어”(trout steel)가 지배하고 있다. 그 역시 프랭클린식의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에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성공에 대한 이상으로 현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술이 아니고는 견뎌내기가 힘든 것이다. 반대로 부의 축적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는 어린 화자에게 있어서 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진 투명한 눈이 덮인 강이 주물공장의 연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고지문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계부와 마찬가지로 자연이나 자연보존보다 산업생산, 기술발전, 영리를 위한 영화산업, 생활의 편리, 욕망의 충족, 그리고 부의 축적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말한다.²⁰⁾ 카네기(Andrew

Carnegie) 송어가 생산되는 피츠버그와 자연적 산물로서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이 숨 쉬어야 하는 눈 쌓인 강이 병치를 이루고, 이상적 낙원을 향한 꿈은 파괴된 듯하다. 이로 인해 어린 화자는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프랭클린 동상에 새겨진 환영의 표현대로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와 약속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모두가 사회·경제적 성공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화자의 어릴 적 친구의 어려웠던 가정형편과 뉴올리언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두 미술가의 이야기가 이런 좌절된 꿈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내가 어릴 적에 탈장 때문에 쿨에이드 중독자가 된 친구가 있었다. 그 애는 가난한 독일계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 애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은 여름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밭에 나가 콩을 따는 일을 해 1 파운드 당 2센트 50을 받았다. 그 애는 탈장을 앓았기 때문에 친구를 빼고 모두가 일을 했다. 수술할 돈이 없었다. 그에게 탈장대를 사줄 돈조차 없었다. (8)

이 독일계 이주가정의 삶은 아이들조차 콩 따는 일로 돈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궁핍하다.

그리고 “월든 호수의 술주정뱅이”(A Walden Pond for Winos) 편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온 미술가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로티건 자신의 실제 경험이 이 이야기에 투영되어 있다. 브로티건은 그의 나이 스물이었을 때, 굶주림에 지쳐 경찰서 유치장 밥을 얻어먹으려 경찰서 창에 돌을 던진 일이 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교도소가 아닌 오리건주립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전기충격요법 처방을 받았다.

월든 호수(Walden Pond)의 두 미술가는 추운 가을 어느 날 화자와 함께 워싱턴 스퀘어의 프랭클린 동상 주변에 모인다. 이 세 사람은 그곳을 경찰의 눈을 피해 술을 마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골라놓은 터이다. 화자를 비롯해 이 가난한 두 미술가들에게 이 워싱턴 스퀘어가 또 다른 하나의 월든 호수가 되어 포트와

20) 고지문, 「각성과 의식개혁 강조- 『미국의 송어낚시』를 근거로」, 『영어영문학21』, 22.2(2009), p. 11.

인과 함께 삶의 위안을 주는 듯 보인다.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프랭클린이 보여줬던 근면·성실·근검에 대해 따라오는 사회적 성공과 쏘로(Thoreau)가 『월든』(WALDEN)에서 강조한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프랭클린과 쏘로 두 사람이 함께 연결되는 장소와 이름의 대비가 주는 차이는 프랭클린의 물질적 이상주의를 『월든』에서 발췌한 다음의 글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그것을 똑바로 맞이해서 살아나가라. 그것을 피한다든가 욕하지는 마라. 그것은 당신 자신만큼 나쁘지는 않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당신의 삶은 가장 빈곤하게 보인다. 흠을 잡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흠을 잡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빈곤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라. 당신이 비록 구빈원의 신세를 지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유쾌하고 고무적이며 멋진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 지는 해는 부자의 저택이나 마찬가지로 양로원의 창에서도 밝게 비친다. 봄이 오면 양로원 문 앞의 눈도 역시 녹는다. 인생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곳에 살더라도 마치 궁전에 사는 것처럼 만족한 마음과 유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¹⁾

이글에서 쏘로는 인간에게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므로 부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 빈곤한 삶일지라도 어떻게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랭클린에게 있어 사회적 성공과 다다익선의 물질적 풍요는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두 미술가 역시 보다 높은 이상과 보다 많은 물질적 성공을 꿈꾸며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온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새로운 포부로 가득 차 있을 그들의 이상을 현실화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곳 한 가운데엔 포플러 나무 세 그루가 있었고, 그 바로 앞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상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포트와인을 마셨다. 우리 셋은 공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둘은 뉴올리언스에서 관광객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다가 온 빈털터리 화가들이었다. 지금, 추운 가을이 내려앉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들은 미래에 벼룩

21) 안정은, 「『Walden』에 나타난 Henry David Thoreau의 이상사회 추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1), p. 19.

서커스를 열지 아님 정신병원에 입원하든지, 오직 두 가지 중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 내려야 했다. (17)

여기서 그들이 상상하는 정신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있는 여자환자와 춤추는 시간, 깨끗한 옷, 잠금장치 면도기, 그리고 사랑스러운 젊은 간호실습생들”(a dance once in a week with the lady kooks, clean clothes, a locked razor and lovely young student nurses)(18)이 있는 곳이다. 두 미술가가 술에 의존해 삶의 방편으로 꼽은 방법들은 그저 삶을 연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삶의 현실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월든 호수에서 세운 계획은 프랭클린식의 성공 신화와는 동떨어져 있다. 또한 비록 가난한 삶일지라도 당당히 맞서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쏘로의 삶의 가치와도 상충된다. 두 사람이 그리는 피난처로서의 정신병원의 풍경에 대해 스텔(William L. Stull)은 쏘로의 피난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나무가 베여 나간 자리에 사회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브로티건의 월든 호수를 브로티건의 가장 음울한 풍자가운데 하나로 꼽는다.²²⁾

브로티건은 깨어진 미국의 꿈을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를 넬슨 엘그린에게 보내기”(The Shipping of Trout Fishing in America Shorty to Nelson Algren) 편에 등장하는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Trout Fishing in America Shorty)를 통해 형상화한다.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미국의 송어낚시의 변형된 모습이다.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지난 가을, 샌프란시스코에 크롬으로 도금된 굉장한 강철 휠체어를 타고 비틀거리며 홀연 나타났다. 그는 다리가 없는 중년 나이의 소리나 질러대는 술주정뱅이었다. 그는 구약성서의 한 장과 같이 노스비치(North Beach)에서 내려왔다. 그는 가을철에 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이었다. 새들은 이주를 해야만 했다. 그는 설탕에서 불어오는 나쁜 바람으로 땅을 차갑게 만들었다. (45)

“크롬 도금의 강철로 만든 휠체어”(a magnificent chrome-plated steel wheelchair)는 화자의 계부가 욕심을 내던 “강철 송어”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어쩌면 미국

22) William L. Stul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American Literature*, 56.1 (March 1984), p. 74.

의 송어낚시 쇼티가 화자의 계부보다 더 나은 물질적 성취를 이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다리가 잘리고, 괴팍한 성질로 변하고, 술에 의지한 삶을 이어간다면, 그 물질적 성취는 결코 값진 일일 수 없음을 작가는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아이들에게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에서 송어가 자신의 다리를 잘라버렸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휠체어를 술가게로 밀어가도록 한 후 곧이어 구입한 달콤한 와인을 거리에서 마셔댄다. 이런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의 모습은 티 없이 순진한 아이들에겐 공포와 혐오로 비칠 뿐이다. 스틸은 이러한 개인주의적이면서 무능한 모습을 띠는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가 미국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와 악몽으로의 귀결을 구체화시킨다고 설명한다.²³⁾ 어느 순간, 아이들은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가 나타나는 동시에 모습을 감춰 그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어느 날 화자는 워싱턴 스퀘어의 프랭클린 동상 바로 앞에서 술에 취한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가 휠체어에서 고꾸라져서는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불구의 몸으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세계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 자포자기에 이른 또 다른 희생양의 모습이다.

화자는 사람들로부터 그라이더 하천(Grider Creek)이라는 꽤 괜찮은 낚시터에 대해 듣게 된다. 마블 산(Marble Mountains)에서 녹은 눈이 흘러내려가는 다른 하천의 물은 다 탁해도 그라이더 하천을 흐르는 물만큼은 깨끗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 하천에는 비버 댐을 흐르는 물에 서식한다는 이스턴 브룩 송어(Eastern Brook trout)가 잡힌다는 것이다. 화자는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려준 그라이더 하천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얻는다. 그러나 괜찮은 지도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펄펄 끓고 있는 듯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 화자는 그라이더 하천으로 갈 수 없다. 송어를 낚을 수 있는 산 높은 곳의 그라이더 하천이라는 이상향을 향해 화자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차 있으나, 그는 차도 없고 무더위로 인해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개인의 환경적·상황적 한계로 인해 마음속 가득 찬 자연에서의 목가적 삶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미국이라는 에덴동산은 누군가에게는 이상의 실

23) Stul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p. 78.

현이 보장된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에게는 반대로 좌절, 실패, 그리고 허무를 안겨주는 곳이다. 이토록 약속의 땅이라는 미국에서의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의 모습은 죽은 자들의 묘지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 묘지에는 커다란 전나무가 서 있고 풀은 하천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시사철 푸르렀는데 거기에는 고급 대리석으로 된 비석과 석상과 무덤이 있었다.

다른 묘지는 가난한 자의 것이었는데 나무도 없고, 풀은 여름에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이 갈색으로 변해 그렇게 늦은 가을에 비가 시작될 때까지 정비공처럼 서 있었다. (20)

가난한 삶을 살다 영면한 이들의 무덤에는 그저 “썩은 빵조각”(heels of stale bread)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 판에 묘비의 주인이 어떤 이였는지 겨우 짐작할 만한 단서가 남겨져 있을 뿐이며, 어떤 묘지에는 과일단지와 시든 꽃이 꽂혀 있는 깡통이 있다.

다음 비문은 브로티건이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 딕』(*Moby Dick*, 1851)을 패러디한 글이다.

1936년 11월 1일
열 여덟에
술집에서
총 맞아 죽은
존 탈보트를 기리며
이 마요네즈 병에
시든 꽃을
6개월 전에 꽂아 놓고
지금은 정신병원에 가 있는 그의 누이가. (21)

멜빌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존 탈보트는 1836년 판타고니아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의 한 배에서 실족해 죽었으며, 그의 누나는 그런 그를 추모하여 비문을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브로티건의 작품에서 100년 후인 1936년에 죽은 20세기의 망자 존 탈보트는 총에 맞아 죽었으며, 시든 꽃이 꽂힌 마요네즈 병을 남겨 두고 간 누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 이른바 탈보트 패러디로 일컬어

지는 이 장면은 1세기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삶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

화자는 이곳 그레이브야드 하천(Graveyard Creek)에서 송어를 꽤 낚아 올렸음에도 가난한 삶을 살다간 이들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묘지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여기서 묘지의 비유는 현재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산업화가 전국가적인 붐을 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메김하면서부터 돈이 돈을 낚는 현상으로 일부 계층에 경제적 자본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편중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와 빈곤한 삶과 비위생적 생활환경에서 사회적으로 뒤쳐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들의 고단하고 피폐한 삶의 흔적과 모습을 보며 화자의 마음에 낙원에서의 이상실현의 이미지가 금간 투명유리 조각처럼 그려져 마음이 아프다.

무지함 속에서 자기착각과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스스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도 우화적으로 그려진다. 중국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에 살고 있는 한 커플에게는 ‘208’이라고 불리는 고양이가 있다. 이들은 ‘208’의 배변을 위해 욕실에 신문지를 깔아주었다. 그러나 ‘208’은 커플이 문밖으로 내보내 준 적이 없어 다른 고양이를 본 적이 없기에 자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고양이인줄로 안다. 빨간 색에 공격적인 성격의 ‘208’은 자기와 놀아주려는 이가 있으면 물어 버리기 일췌다. 화자는 이 커플을 만나러 호텔을 방문할 때면 ‘208’을 그들이 사는 호텔방 번호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보석금 10달러를 지불하는 일이 생기면서 ‘208’이 법원의 보석담당 사무실 번호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고양이 ‘208’에 반영된 것이며, 고양이의 생활공간인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방은 뛰어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적 제약’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의 고양이 ‘208’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이상실현의 꿈을 안고 있지만 말로만 약속된 이상낙원인 미국에서 허덕이는 삶을 사는 이유를 자신의 무능으로 귀속시키면서—때로는 고양이 ‘208’이 발톱으로 할퀴는 수준으로 세상에 화풀이하며—살아가는 순수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겔브레이스는 “빈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저

하는 체제의 일부이며,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사회발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면을 꼬집는다.²⁴⁾

또 브로티건은 보다 나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보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브로티건은 1930년대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탈주범인 존 딜린저(John Dillinger)²⁵⁾의 고향인 인디애나(Indiana)주의 무어스빌(Mooreville)을 ‘존 딜린저의 수도’라고 부른다. 딜린저는 1934년 FBI의 집중 총격에 의해 사망한 은행전문털이범이다. 물론 딜린저는 범죄인이다. 그렇지만 그가 범죄자가 된 계기는 결코 그를 은행 강도 탈주범으로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바로 그 존 딜린저의 수도로 한 커플이 이사해 들어온다. 그 커플은 집 지하실에서 수백 마리의 쥐를 발견한다. 그 쥐들은 “거대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아이의 눈”(huge, slow moving child-eyed)(13)을 갖고 있었다. 남자는 이런 쥐들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에 38구경 권총으로 쏘아댄다. 쥐들은 총을 난사하는 남자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심지어 옆에서 바로 죽어간 쥐들을 팝콘 먹듯 바쁘게 먹어댄다. 남자가 이런 쥐들 중 한 마리의 머리에도 총을 겨누었고, 그 쥐는 권총에서 남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그 눈은 순진하고 친절해 보인다. 그런 쥐에 방아쇠를 당기는 남자의 행동에는 유머란 없다. 여기서 총격에 사망한 딜린저의 투영된 모습인 쥐는 힘없는 대중의 모습을, 그리고 총을 쏘아대는 남자는 힘 있는 가진 자의 모습을 대변한다. 쥐에 투영된 힘은 없지만 바보처럼 보일 만큼 순진한 대중의 모습은 힘을 가진 자에 의해 얼마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대상인지를 잘 보여준다. 힘없는 대중의 모습과 가진 자의 횡포는 “20세기의 시장”(The Mayor of the Twentieth Century) 편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미국의 송어낚시 의상을 입었다”(He wore a costume of trout fishing in America)(48)에서 그 남자는 ‘20세기의 시장’을 가리킨다. 이 시장은 유머도 없고 무자비한 자기 내면을 감쪽같이 숨기고 힘이 없는 대중을 유린하기 위해 미국의 송어낚시로 변장한다. 밤과 낮의 생활상이 전혀 다른 ‘시장’은 완벽히 미국의 송어낚시 변장을 한다. 변장은 밤에 행한 살인행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

24) 존 갤브레이스, 『풍요한 사회』, 노택선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6), p. 67.

25) <http://www.chicagotribune.com/news/politics/chi-chicagodays-johndillinger-story,0,7770658.story>

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그가 범한 살인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다.

‘20세기의 시장’은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살상을 자행했던 19세기의 잭 더 리퍼의 부활이다. 19세기 말엽에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 면도날 잭)는 매춘부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자행했다. 당시 영국경찰은 헛물만 켜고 범인에 대한 단서 하나도 못 건지는 무능함을 드러낸다. 이토록 인명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부활된 모습은 공산주의 국가건설의 기치 아래 무수한 전쟁과 살상을 초래한 스탈린이나 엄청난 인종주의적 살상을 범한 히틀러에 비견될 수 있다.

또한 ‘20세기의 시장’은 밤과 낮의 모습이 다른,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치가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상업 활동을 통한 자본축적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확장을 꾀하는 대자본가들과 결탁하면서 정경유착의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정부 또는 힘을 가진 일부 집단의 논리에 순응하는 개인들은 사회 보편적 이념논리에 반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터부시하고 배척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이 소설의 화자가 미국의 송어낚시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송어낚시에게

지난주 출근 중 시장 아래 길을 따라 걷다가 한 가게 창문에 붙어있는 FBI의 10인 공개수배 사진들을 보게 됐네. 어떤 한 사진 아래 붙어 있던 전단지(양쪽 끝이 접혀있어 다 읽을 수가 없었지. 주근깨, 곱슬머리(빨간 머릿가?)에 착해 보이는 잘생긴 녀석 사진이었지.
(41)

전단에 묘사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 국적의 건강한 백인 청년이다. 이 편지글에 대해 미국의 송어낚시는 답하는 글에서 “네 글로 인해 내가 어쩌다 지난주에 송어하천을 지켜보고 있는 두 명의 FBI요원을 보게 됐는지 알겠군”(Your letter explains why I saw two FBI agents watching a trout stream last week)(42)이라고 쓴다. 매카시즘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진행된 냉전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사회현상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1940년대 말의 동유럽 공산화에 이어 1949년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과 중국의 공산화, 한국 6·25전쟁, 그리고 1957년 소련의 세계최초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공산권의 범위확장과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혐오를 낳았으며, 보수주의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²⁶⁾ 따라서 좌익세력과 좌익옹호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한 사회 안정을 바라게 되었고, 이때 좌익색출에 앞장섰던 국가기관이 FBI였다. 개인들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지나친 감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정서를 위축시켰으며 공산주의에 대해 병적인 혐오감을 갖게 만들었다. 관대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통한 화해의 노력을 하기 보다는 사회적 편견에 휩싸여 마녀사냥 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상대를 내몰아 사회적으로 도태를 시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화자와 그의 친구들이 대담하고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쫓지만 그들을 다룰 줄 아는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 다니곤 하던 화자의 어린 시절 모습이 “미국의 송어낚시 테러리스트”(Trout Fishing In America Terrorists) 편에 나타난다. 6학년이 된 4월의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야외 당구장 같은 운동장에서 당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1학년 신입생들과 만난 이후 화자와 그의 친구들은 스스로 미국의 송어낚시 테러리스트가 된다. 이는 친구 중 하나가 지나가던 신입생을 멈춰 세우고는 어린 후배의 등에다 분필로 “미국의 송어낚시”(Trout Fishing in America)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된다.

우리는 1학년생이 ‘미국의 송어낚시’라고 자기 등에 쓰여서는 걸어 가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1학년생이 분필로 ‘미국의 송어낚시’라고 등에 쓰여진 것이 보기에 괜찮았고 또 꽤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보는 눈이 즐거웠다. (37)

6학년 미국의 송어낚시 테러리스트들은 등에 ‘미국의 송어낚시’가 쓰인 채로 멀어져 가는 후배의 뒷모습이 보기 좋고, 즐거우며, 꽤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테러를 면할 수 있었던 한 신입생을 제외한 1학년 모든 아이들의 등에 “미국의 송어낚시”(Trout Fishing in America)를 분필로 써

26) 류희명, 「1960년대 미국 보수주의의 성립 배경 연구 -YAF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4), pp. 28-31.

놓았다.

6학년생들이 신입생의 등에 써놓은 ‘미국의 송어낚시’ 등 낙서 테러는 읽지 말아야하는 순수함과 열정에 대한 되새김의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상력 넘치는 개혁적인 행동은 교장선생님에 의해 제지당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등에다가 ‘미국의 송어낚시’라고 쓴 채 쿠바에 대해 가르치고 또 주변을 걸어다니는 걸 보고 싶니? 바보 같아 보일거야 그렇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되겠지, 그렇지?”

“네,” (39-40)

1학년 아이들의 등에 쓰인 낙서는 세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데 시일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희미하게 남아 있던 ‘미국의 송어낚시’ 자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장난기 어린 행동이 교장 선생님에 의해 제지당하듯 냉전체제하에서의 사회분위기는 새로운 시도, 참신한 생각, 진보적인 아이디어조차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이에 맞서는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에서 더는 송어낚시를 즐길 수 없고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듯이 냉전체제하에서의 미국사회는 순수한 이상주의와 열정이 숨 쉴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브로티건은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III. 자연과 문명

비유로 가득 차 그 의미를 곱씹히 생각해 보게 하는 지극히 짧은 글로 구성된 “나무 두드려보기”(Knock On Wood²⁷)(Part One))의 마지막 부분은 미국의 송어낚시가 “나는 세 군데가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새벽녘에 낚시하던 모습을 특별한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I remember with particular amusement, people with three-cornered hats²⁸) fishing in the dawn)(3)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다. 새벽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건국한 이상적 국가로 세우고자 노력한 건국 여명기의 조상이다.²⁹ 미국의 송어낚시가 보았던 새벽녘 송어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목가적 모습과 물질문명시대를 사는 미국인들의 삶의 모습의 병치를 통해 브로티건은 목가정신이 살아있는 송어낚시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물질문명세계로의 성장 동력이 되는 강철을 더욱 중시 여기는 미국사회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새벽시간 송어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스럽고 여유 있는 목가적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송어낚시’의 어구에서는 그러한 목가적 여유와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안락함에 대한 향수와 아쉬움이 묻어난다. 인간의 삶이 대자연과 함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국가의 모습에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인행복의 권리를 추가한다고 해서 광활히 펼쳐진 태고의 자연과 환경이 이토록 파헤쳐지고 훼손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상적 삶의 모습을 “영원의 거리에서의 송어낚시”(Trout Fishing on the Street of Eternity) 편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영원의 거리(Calle de Eternidad)를 찾아 언덕으로 난 오솔길을 걷던 중 화자는 과거 어릴 적 북서태평양에서 90대의 노부인을 위해 방과 후 토요일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일했던 때를 떠올리게 된다.

27) knock on wood ‘행운을 빌다’의 관용적 표현으로 나무로 변한 하천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 소설의 역자 김성곤은 풀이한다.

28) ‘삼각형의 구식 모자를 쓴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프랭클린 루즈벨트, 토마스 제퍼슨 등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일컬으며, 삼각형 모자는 18세기 유행했던 모자로 목숨을 걸고 자신들과 온 미국인의 자유, 생명,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즐겨 썼었다.

29) 천승걸, 『미국문학과 그 전통』, p. 226.

나는 할머니의 바위 정원을 정리했고, 할머니 댁에 뱀이 나타날 때마다 쫓아냈다. 할머니는 죽이라고 말했지만, 가터뱀을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할머니는 뱀을 밟게 되더라도 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뱀을 잡게 되면 길 건너 뜰로 쫓아 보냈다. 아마 아홉명의 할머니들이 이를 닦다 뱀을 보고는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다. 다행한 것은 시신이 들려나가기 전에 내가 그곳을 떠나왔다는 것이다.

라일락 숲에서 블랙베리 나뭇가지들을 정리하곤 했었다. 할머니는 때때로 집으로 가져가라며 라일락을 줌 주시기도 했는데, 라일락은 항상 예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가 유리잔처럼 라일락을 높이 자랑스럽게 들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좋았다.

난로에 지필 장작을 패기도 했었다. 할머니는 난로에 나무로 불을 때어 요리했고, 겨울에는 커다란 벽난로에 나무로 불을 지피 난방을 하셨는데 그럴 때의 할머니는 겨울 동안 어두운 바다 속의 잠수함 선장처럼 일했다.

여름에 하늘의 구름도 길에 주차된 차와 고양이까지 모든 것이 나무처럼 보일만큼 정신없도록 장작을 패서는 할머니의 지하실에 끝없이 쌓았다. (82)

바위투성이 정원, 뱀, 라일락, 블랙베리 나뭇가지, 장작패기 등 화자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에는 목가적 정취가 가득 차 있다. 뱀과 같은 자연 생명체에 해를 가할 이유를 못 찾는 어릴 적 화자의 모습은 순수하기만 하다. 라일락덤불에서 블랙베리 나무를 걷어내는 일로 고단해진 어린 화자의 피로감을 할머니가 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을 라일락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고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벽차오르게 된다. 그리고 나무를 때어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타닥타닥 소리 내며 집안에 온기를 퍼뜨리며 타는 장작의 이미지는 정감 넘치는 일상의 모습을 연상시켜 시간의 촉박함이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구름도 주차된 차들도 심지어 고양이들까지 나무로 헛보일 정도가 되도록 장작을 패서 지하실로 날라다가 쌓아놓는 일을 하는 어린 화자의 모습은 전원 속에서 노동이 주는 순수한 가치와 노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보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적 분위기 속에서 생기 넘쳐 보이는 화자의 과거 삶의 경험이 바로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가까워 보인다.

여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기 수주 전 7월 어느 날, 화자는 아이다호의 빅 우드 강(Big Wood River)에서 미국의 송어낚시를 마지막으로 만난다. 그때 화자는 몸이 불편한 아내가 혼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빅우드 강으로 낚시를 나온 터였다. 미국의 송어낚시는 아이의 천진스런 장난도 가볍게 받아주는 관대함과 온화함을 지니고 있었다. 화자의 어릴 시절 몬태나 주(Montana)에 있는 그레이트 폴스(Great Falls)에서 겨울 한철을 지냈는데, 그때는 세상이 전쟁의 와중이었으며 디나 더빈(Deanna Durbin)이 나오는 영화를 7번 보았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미국의 송어낚시는 “나도 그레이트 폴스에 여러 차례 가봤지. 인디언과 모피상들은 기억이 나지만 디나 더빈이 출연한 영화를 봤던 기억은 없네”(I’ve been to Great Falls many times. I remember Indians and fur traders. I remember Lewis and Clark, but I don’t remember ever seeing a Deanna Durbin movie in Great Falls)(89)라고 말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 미국의 송어낚시는 1800년대 초기에 당시 미개척상태이던 미시시피 강 너머 미국 서부로의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의 사명을 안고 먼 여행길을 떠난 루이스(Meriwether Lewis)와 클라크(William Clark)³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험난한 탐사 길 와중에 마주치게 된 폭포와 미주리 강이 안겨준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전율했던 탐사대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읊조린다.

나는 루이스가 그 폭포를 발견한 날을 기억하네. 그들은 일출 때 캠프를 떠나 몇 시간 뒤 아름다운 평원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이전에 한 장소에서 본 적이 없는 많은 들소가 있었지.

그들은 멀리 폭포 소리가 들려오면서 저 멀리 물줄기가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네. 그들은 점점 더 커지는 폭포 소리를 따라갔지. 잠시 뒤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들은 미주리 강의 그레이트 폴스에 닿게 됐네. 도착한 때가 정오 무렵이었지.

그날 오후 좋은 일이 일어났다네. 폭포 아래로 낚시를 갔는데 송어 여섯 마리를 낚았지. 16인치에서 23인치 길이의 괜찮은 놈들로 말이야.

그게 1805년 6월 13일이었네.

아니지. 내 생각에는 미주리 강이 갑작스레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30) <http://www.uncp.edu/home/canada/work/allam/17841865/history/science/lewclark/>

코러스 걸 일을 하는 듯해 보이는 디나 더빈이 나오는 영화처럼 보이기 시작했더라면 루이스가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네. (91)

루이스와 클라크가 그레이트 폴스를 발견했을 당시를 기억하는 미국의 송어낚시의 묘사에서는 창연한 원시림이 본모습을 드러낸다.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미주리 강의 폭포 소리는 대자연이 살아 있는 듯 역동적인 생태계 순환을 위한 자연생명의 펌프질로 느껴진다. 또한 인류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 모습 그대로인 강과 건강한 생태환경의 영향으로 미주리 강에서 낚아 올린 송어의 수나 크기는 탐험대를 크게 만족시켰을 것이다.

영화의 주연 여배우로 대활약을 했던 디나 더빈의 모습이 화자에게는 친숙함과 편안함을 주는 반면, 미국의 송어낚시에게 디나 더빈은 상업자본의 확장에 일조한 인물로 미 대륙 태고의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어떠한 연관도 맺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착취와 소모를 연상시키는 디나 더빈이 출연한 영화는 생동하는 대자연과는 병치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들의 목숨을 건 탐사로 인해 미국 동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지역적 한계가 극복되면서 미지의 새로운 곳으로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사회적 성공과 부의 추구가 가져온 물질주의적 사고는 인간을 쾌락에 쉽게 빠져들게 하고 부와 권력 앞에 쉽게 허물어지게 만든다. 프랭클린이 그의 자서전을 통해 물질의 획득과 그 확장이 삶에서 중대한 일임을 후대에 전한 바와 같이, 일단 물질적 소유가 인간 삶의 도전목표가 되면서 과거 조상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형성하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이성적·합리적·낙관적 사고 그리고 개척자정신과 같은 미국적인 정신문화 유산은 변형되어버렸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미국사회의 대중은 평등과 행복을 자유롭게 구가하기는커녕 공장에서 대량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공산품 같아 보이는 획일화 양상을 띄었으며, 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동력을 공급해야하는 인간은 이내 자본주의체제의 부속품처럼 되어갔다.

미국 조상들이 이상으로 여기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적 이상낙원 건설의 꿈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만능으로 치달아 온 지배적 시대정

신으로 왜곡됨으로 인해 미국적 정신은 건강함을 잃어 급기야 배금주의적 사고의 만연, 더욱 좁혀지기 힘든 빈부격차 문제,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문제, 윤리적으로 그릇된 가치관과 범죄의 만연, 그리고 기준과 철칙 없는 자연생태계의 남용 등 여러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아메리카의 역사가 개척의 역사라면 개척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 미개발의 자연을 문명화(文明化)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의 훼손이며, 파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역사적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그러한 진보와 발전이 반드시 선(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³¹⁾

이에 브로티건은 자본주의적 현대 물질문명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되어 뒤떨어진 현대의 문명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편적인 이야기 속에 담아 독자들의 각성을 요구한다. “메시지”(The Message) 편에는 사회적·정신적 질서를 국익 추구라는 미명 하에 세계를 전쟁이라는 광란의 상태로 몰아넣었던 독재자 히틀러가 언급된다. 송어낚시를 찾아 차를 몰고 여행 중인 화자와 아내 그리고 딸, 이 세 사람은 이동 중인 양떼와 조우한다. 연료를 태우며 엔진소리를 내고 있을 화자의 차량이 자연 속에서 떼를 지어 움직여 다니는 양떼의 흐름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목동 하나가 나뭇잎이 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양들을 끌며
차 앞을 걸어갔다. 그는 어리고 마른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를
닮았지만 친절해 보였다. (34)

이 글에서 화자는 양떼를 몰고 있는 목동의 모습에서 젊고 마른 히틀러를 발견하는데, 그 모습은 독재자 히틀러이지만 히틀러를 닮은 목동에겐 친절함이 묻어 있다.

목동의 생김새가 히틀러와 유사해서일 수도 있으나 굳이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고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패권의 야욕을 품었던 히틀러의 이미지를 목동에게서 읽은 것은 아마도 목동이 몰아가는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양떼들 때문일 것이다. 2차 대전이 남긴 전쟁의 참상이 사회적 분위기와

31) 정진봉, 「自然과 文明의 葛藤(I)—James Fenimore Cooper의 The Pioneers에서」, 『釜山大學校 人文論叢』 20.1(1981), p. 138.

사람들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자연스레 히틀러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몇 달 전 받았다는 “스탈린그라드”(Stalingrad)라고 쓰인 메시지는 잘못 맞은 한 시대의 지도자로 인해 세계질서가 얼마나 흐트러질 수 있으며, 전쟁 피해자들과 인류에게 뼈아픈 오점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독재자가 갖는 특성은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복종이다. 목동이 갖는 그러한 힘은 양떼라는 자연물과 자연 상태에 속해 있으면서 자연세계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진 그것과는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서 히틀러답지 않은 친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양떼들에 대한 상관물은 일반대중이 된다.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통해 승전국으로 위상을 드높이며 세계경제 패권을 거머쥐게 된 미국사회는 속속 생산성과 경제력을 쌓은 일부 기업이 기업 합병 등을 통해 거대복합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제력이 일부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야기된 소득불균형은 일시적 빈곤이 아닌 대를 물리는 빈부격차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냉전시대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부적 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보수주의 사고가 팽배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억압적이면서 불평등하게 흘러가고, 전쟁의 악몽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반대중들은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만족을 느끼며 순종적인 소시민이 되어 간다. 이러한 사회체제에 순응적인 미국사회 대중의 모습은 “양들은 패전한 적군의 깃발처럼 하나둘 잠들었다”(The sheep lulled themselves into senseless sleep, one following another like the banners of a lost army)(36)라는 표현에 잘 나타난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거대자본에 의해 나올 때, 히틀러의 이미지는 곧 미국의 자본주의경제에 대비된다.

물질문명의 팽창과 더불어 미국은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 맞서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국내에서 이념분쟁을 낳는다. 대체로 1960년대 미국사회의 시대적 분위기는 보수적이고 억압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다. 화자가 아내와 딸과 함께 캘리스 국유림으로의 여행길에 스탠리(Stanley)의 한 가게에 들렀을 때, 화자는 막대 사탕 값을 치르며 쿠바에서의 송어낚시는 어떠한지 주인에게 묻는다. 그러자 주인은 “죽어도 싸

지. 이 공산당 후레자식”(You’re better off dead, you Commie bastard)(60)이라고 응수한다. 화자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임을 발견한다. 시대적으로 1961년을 전후해 쿠바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주도하던 카스트로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기존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카스트로 정권의 사회주의 개혁과정 중에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과 쿠바 사이의 대결양상은 미국 전역을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한다. 이 공포는 1950년 초반에 미국전역을 휩쓸던 매카시즘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사회전체가 앓았던 혹독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보인다.

브로티건은 미국인들의 삶이 시간적·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소비생활로 인해 편리해지는 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잃어 가고 있음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 한다. “빨간 입술”(Red Lip) 편에서 어릴 적 생애 첫 송어낚시가 실망과 좌절로 끝난 후 17년이 지난 어느 날, 화자는 송어낚시를 나왔다가 체류 중인 클라매스 강(Klamath River) 하류의 스틸헤드(Steelhead)로 돌아가려고 히치하이크를 시도한다. 세 시간이 걸려서야 화자는 가까스로 어느 노부부가 세워준 차에 오른다. 화자는 세상이 각박해졌는지 예전과는 달리 낚시꾼을 잘 태워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라버린 인심을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휩쓸고 있는 캠핑열기에 관한 메모”(A Note On The Camping Craze That Is Currently Sweeping America)에 나오는 세 번의 결혼 경험자인 노리스 씨(Mr. Norris)는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송어 낚시와 캠핑을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들의 말에 노리스 씨는 캠핑 장비 일체를 준비하고 캠핑여행을 떠난다. 그는 캠핑객들로 가득 차버린 캠핑장에 놀라며 열여섯 군데의 캠핑장을 전전하게 된다. 마침내 열일곱 번째 캠핑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앰블런스로 실려 나가서야 자리가 난 곳에 캠핑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밤중에 잠들었던 노리스 씨를 깨우는 사건이 일어난다. 낮에 시체를 수거해 간 앰블런스가 되돌아와서 그의 텐트에서 1피트도 안 되는 자리에다 시체를 두고 가려는 것을 노리스 씨가 다시 들려 보내는 소동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개인의 물질적 성취를 위한 타인에 대한 착취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초래한 배금주의적 현실에 대해 고발하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 208호”(Room 208, Hotel Trout Fishing in America) 편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용당하는 약자들이 등장한다. 어느 날 화자는 한 친구에게서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 208호에 살고 있는 한 흑인 커플을 소개받는다. 아트(Art)라는 이름의 남자는 대공황기에 잠깐 동안 의과 공부를 하다가 흥행사업에 뛰어들었고, 이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불법 낙태시술소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다 붙잡혀 샌 쿼엔틴(San Quentin) 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은 오클라호마(Oklahoma) 출신으로 10대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의해 악덕포주에게 팔려서는 샌프란시스코로 끌려왔다. 그녀는 낮에는 전화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매춘을 해야 했다. 포주로부터의 폭력과 착취의 그늘에 있던 그녀를 아트(Art)가 구해주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사람은 악덕포주가 그녀에게 안긴 빛 2,000달러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연속적인 착취상태에 놓여 있다. 캐딜락과 하이파이 스테레오 세트, 값비싼 옷 등 악덕포주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두 사람은 빛 청산을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인간의 착취의 대상은 인간을 넘어서 자연으로까지 확장된다. 야생의 자연은 약육강식 또는 공생이나 기생의 세계로 자연적 먹이사슬구조가 지켜져야만 생태계 보존이 약속된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야생 동식물의 영역인 산림과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가 방해받고 있다. 특히, 새 삶을 개척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영토 서부 각지로 모여들고 도시건설과 지역개발이 붐을 이루면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났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여 경작과 목축을 통해 공급해야하는 식량생산도 증대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초원이나 산림의 개간을 통해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림 파괴가 횡행해졌고, 그 터의 주인이던 야생동물은 살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솔트 하천의 코요테들”(The Salt Creek Coyotes) 편에서 브로티건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동물을 살상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풍자한다.

“오, 솔트 하천에 코요테 있음.”

“코요테를 죽이기 위해 하천을 따라 뿌려놓은 청산칼리 캡슐을 조심하시오. 당신이 코요테가 아니라면 청산칼리 캡슐을 주워 먹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53)

화자는 산길을 걷다가 위와 같은 표지판들을 발견한다. 이 표지판의 내용이 궁금해진 화자는 바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이에 노인은 청산칼리 캡슐을 코요테가 좋아하는 향을 섞어 만들었는데, 코요테가 캡슐에 코를 대고 쿵 대는 순간 그 성능이 총과 같아 즉사하게 된다고 답한다. 이렇게 야생자연이 파괴되는 원인을 브로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높아 인적이 없고 변함이 없는 곳. 그런 일을 그들에게 하게 만든 것은 골짜기 아래 양들의 냄새다. 오후 내내 여기 빗속에서 나는 솔트 하천에서 울려 퍼지는 코요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53)

여기서 “그런 일”이란 바로 청산칼리 캡슐을 뿌린 것을 의미한다. 브로티건은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코요테의 심정에 대한 공감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오후 내내”라는 시간의 경과로 표현하고 있다.

이후 솔트 하천으로 낚시를 나간 화자는 보석상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뱀처럼 호리호리한 점박이 돌리 바든 송어(Dolly Varden trout)를 낚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코요테를 없애기 위해 뿌려놓은 청산칼리 캡슐 생각에 화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솔트 하천의 코요테들이 직면한 환경은 화자에게 “샌 쿠엔틴의 가스실” 이미지와 동일시된다. 이 청산칼리 캡슐에 의한 코요테 학살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줄은 “이곳엔 이틀 내내 비가 내리고 있고, 나무들 사이로 심장은 고통을 멈춘다”(It has been raining here now for two days, and through the trees, the heart stops beating)(54)로 끝난다. 청산칼리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코요테들의 눈물은 “이틀 내내 내리는 비”에 비유되며, 숲 어디에선가 독이 든 캡슐로 인해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다 죽음에 이르는 코요테를 나무들 사이로 멈추는 심장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의 무자비한 동물 학살에 대해 브로티건이 갖는 안타까운 심정과 분노가 엿보이며, 마치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을 지배하고 균형을 깨뜨리려는 과욕에 대해 일침을 놓고 있다.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The Cleveland Wrecking Yard) 편에서 브로티건은 인간의 자본주의적 물질주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위해 환상적 기법을 사용

한다. 그는 자연물까지 일정 단위로 나눠 사고 팔수 있는 소유·이전 가능한 물질로 전락시키는 세태를 조소한다. 화자는 먼저 두 서너 친구에게서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에 대해서 듣게 된다. 한 친구는 그곳에서 몇 달러를 주고 창틀, 유리 등을 사다가 창을 만들어 달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친구는 그곳에서 철 지붕을 샀다고 말한다. 화자가 가서 본 친구의 창문은 훌륭해 보이고, 철 지붕 또한 볼만 하다.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된 것은 ‘중고 송어하천’(a used trout stream)을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이다. 이 탐색에 대해서 김성곤은 “그(브로티건)는 녹색공간과 맑은 하천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현대인들이 상실한 정신의 녹지대와 마음의 하천을 그리워한다”³²⁾고 말한다. 버스를 타고 내린 곳에서 바로 발견되는 것은 폐점해 버려진 주유소와 버려진 50센트짜리 셀프세차 기계로 황폐한 분위기를 풍긴다. 버려진 주유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의 매우 긴 앞 유리창은 광고표지들과 상품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화자가 중고 송어하천에 대해 판매원에게 묻자, “피트 단위로 팝니다. 원하시면 조금 사셔도 되고, 아니면 남은 송어하천 다 사 가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남자가 와서는 조카 생일선물로 564 피트를 사갔거든요”(We’re selling it by the foot length. You can buy as little as you want or you can buy all we’ve got left. A man came in here this morning and bought 563 feet. He’s going to give it to his niece for a birthday present)(104)라고 말한다. 이곳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에서는 온갖 자연물이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마냥 화폐가치가 매겨져 팔리고 있다.

브로티건은 온갖 자연물을 쓰다가 되팔기가 가능한 중고 상품으로 표현한다. 판매원은 폭포도 따로 팔며, 나무와 새, 꽃, 풀, 양치류, 곤충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판매원은 콜로라도로부터 특별히 주위를 기울여 날라 왔고,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중고 송어하천의 상태는 매우 좋으며, 송어하천에서 서식하는 송어는 하천과 함께 팔려 팔리고 있으며, 송어낚시도 잘 된다고 말한다. 화자는 궁금해 하던 송어하천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판매원이 일러준 대로 중고 송어하천이 보관된 곳을 찾아간다. 도중에 벽에 기대어 쌓여 있는, 길이가 여러 종류인 가격표시 꼬리표가 붙어 있는 폭포도 화자의 눈에 띈다.

32) 김성곤, 『미국 현대문학』, p. 463.

한편 화자가 중고 송어하천을 찾아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을 찾은 것은 그가 원하는 송어낚시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탐색노력이다.

오, 난 지금까지 그런 송어하천은 본적이 없다. 그것은 10피트, 15피트, 20피트 등 다양한 길이로 쌓여 있었다. 100피트 길이 하천 더미도 있었다. 조각조각 잘라 담아 놓은 한 상자도 있다. 6인치짜리에서 2피트까지 여러 크기의 조각들이었다. (106-107)

이곳에는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다. 그 중고 송어하천 뒤로는 캔버스 조각을 기워 만든 천으로 덮여 둘둘 말아놓은 나무와 숲 더미가 보이는데 그 끝으로 나무 꼭대기와 뿌리가 삐죽이 나와 있다. 가까이 다가가 송어하천의 길이를 가늠해보다가 송어 몇 마리, 괜찮아 보이는 물고기 한 마리, 바닥을 기고 있는 가재 몇 마리를 발견한 화자는 “하천은 훌륭해 보였다. 나는 물속에다 손을 집어 넣어봤다. 물은 차가웠고 좋은 느낌이었다”(It looked like a fine stream. I put my hand in the water. It was cold and felt good)(107)라고 송어하천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다.

물질로 넘쳐나는 삶속에서도 상업화된 자연일지라도 그러한 자연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순수한 이상이 전달된다. 천승걸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상업문명의 회화적인 만화경”이 나타나는 부분이며, 물질문명에 대한 한탄이나 비난 보다는 현실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포용하면서 열려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이고 있다고 서술한다.³³⁾ 열려있는 가능성의 제시라는 해석에 부분적으로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브로티건이 클리블랜드 중고품 하치장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끝맺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어하천이 쌓여 있던 곳으로 돌아오다가 나는 곤충들을 발견했다. 1제곱피트 당 80센트에 파는 조립식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있었다. 표지판이 하나 문에 걸려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벌레들 (107)

33) 천승걸, 『미국문학과 그 전통』, p. 81.

결국 브로티건은 화자의 이상실현의 탐색에 대한 결과를 “벌레들”로 귀결 짓는다. “철제 조립식 구조물”(prefabricated steel building)은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하며,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은 자연의 피조물들까지 상품화하여 가치를 매겨 사고파는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적 사고체계를 갖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브로티건은 중고품이 되었지만 상품화되어 싸게 팔리고 있는 송어하천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어 하던 화자가 인간의 손에 의해 가공되어 변형된 하치장의 가짜 송어하천이 결코 고유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력을 간직한 송어하천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음을 암시한다. 작가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신주의적 사고를 꼬집고 있으며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막다른 길목에 처한 절망적인 느낌을 준다. 김성곤은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인간의 목가적 꿈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이 장면에서 브로티건의 절망과 아이러니는 그 극에 달한다”³⁴⁾라고 말한다.

편리하고 보다 풍요로워진 문명생활의 이면에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관목숲에서”(In the California Bush) 편에 파드(Pard)라는 화자의 친구가 등장한다. 30대 후반이 된 현재의 파드는 시와 실험적인 소설을 찍어내는 인쇄소에서 시간당 1달러 35센트를 받고 라이노타이프를 사용하는 인쇄기술자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그는 전쟁터에서의 살상경험과,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도 하였다. 파드는 1960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브리티시나이지리아에서 오클라호마(Oklahoma)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두 살때 미국으로 건너 와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에서 목장을 돌보는 아이로 자랐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참전하여 기관총 사수가 된 파드 중사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항해 싸웠다. 퇴역 후 아이다호로 돌아온 후 파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파리로 갔다가 실존주의에 심취되기도 했다. 이후 아이다호로 돌아온 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San Francisco Bay)에서 예인선을 몰았고, 아이다호에서는 기관차창고에서 철도원으로 일했다.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혼 이후 아리조나(Arizona)로 간 그는 신문 기자이자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

34) 김성곤, 『미국 현대문학』, p. 463.

이처럼 파드는 각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다양한 삶을 경험했다. 그래서 였는지 멕시코 국경마을의 나코에서 그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무절제한 생활상을 하게 된다.

그는 나코의 술집에서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고, 메스 칼트리운포를 마셔대고, 카드 도박도 하고, 총알구멍으로 가득한 집 지붕에 총질을 해댔다. (92)

파드의 삶의 모습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젊은이들의 생활상을 대변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를 경험하면서 얻은 정신적 불안과 고통의 극복노력과 동시에 개인의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더 이상 사회는 파드가 갈구하는 행복과 성공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곳이 되었다. 전쟁터에서 총칼을 들이대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국가가 내세우는 이념에 동참해 살상의 굴레에서 살아남은 것도 잠시, 파드는 곧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개인의 이상실현의 허구와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다.

IV. 절망과 꿈

브로티건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파괴지경에 이른 절망적인 자연환경과 오염된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희망을 잃어가는 인간 삶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현대의 사회적, 자연 환경적 여건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아 인간의 건강한 정신적 활동과 생명창조 활동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브로티건은 파괴된 자연과 인간의 황폐한 삶이 서로 주고받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깊이 성찰하게 한다.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성장 발전하는 동안 미국적 특성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는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주 물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한 집을 짓고 공동체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자연의 훼손을 가져왔다. “나무 두드리기 2”(Knock On Wood (Part Two)) 편에서는 화자가 어린 시절의 어느 봄날에 포틀랜드의 한 낫선 마을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어낚시를 가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아침에 송어를 낚을 미끼로 흰 빵을 준비하고 한껏 들뜬 기분으로 길을 나선 화자에게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천에 더 가까워졌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천이 제대로 흐르고 있지 않았다. 그 움직임이 이상했다. 그 흐름에 문제가 있었다.

...

폭포는 나무 사이에 있는 집으로 이어지는 하얀 나무 층계였다. 믿을 수 없던 나는 층계 위아래를 올려다보고 또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있었다.

그러다가 나의 하천을 두드려보았더니 나무소리가 났다.

결국 내가 송어가 되어 가지고 온 빵을 먹어버렸다. (4-5)

자연적 질서에 따라 순조롭게 움직여야 하는 물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천을 서식지로 해서 살고 있던 생물체에게도 파괴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으로 이어지는 “하얀 나무층계”는 바로 이주민들의 집

으로 난 것이며, 이것은 곧 인간 문명의 손길이 자연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고 자연산림이 파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브로티건은 이런 은유를 통해 자연훼손 문제를 통해 조상들이 누렸던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삶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삶의 가치가 깨어진 왜곡된 현실을 암시적으로 고발한다.

결국 송어낚시를 가기 전에 화자의 가슴을 메웠던 기대와 흥분은 사라지고 이미 훼손된 자연 앞에서 실망감과 상실만 더해진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층계를 하천으로 바꿀 수 없었지. 그 소년은 왔던 곳으로 돌아갔어. 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지. 버몬트에서 내가 한 노파를 보고는 송어하천으로 착각한 거야. 나는 사과를 했지.

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지. “저는 할머니가 송어하천인줄 알았어요.”

노파는 “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 (5)

어깨가 축 쳐진 채 돌아서던 어린 화자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송어낚시도 파괴된 자연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만한 힘이 없다. 자연의 하천은 이미 흙으로 뒤덮이고 그 땅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층계”는 위로 뻗어 있다. 현실적으로 물질문명이 지배해버린 현실에서 자기 영역을 빼앗겨버린 송어낚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송어낚시 역시 환경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하천의 변화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크레스(David Kress)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서 상상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³⁵⁾ 미국의 송어낚시가 할머니에게서 송어하천의 모습을 찾은 것은 아마도 할머니의 연륜에서 풍기는 낮익음이나 묻어나는 친근함 때문에 생긴 착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지만, 풀이 죽은 화자를 위로하기 위해 미국의 송어낚시가 던진 농담일 수 있다.

“톰 마틴 하천”(Tom Martin Creek) 편에서 화자의 망연자실했던 자연 속에서의 경험이 나타난다. 화자는 어느 날 클라매스 강(Klamath River)으로 흘러들어 가는 작은 톰 마틴 하천(Tom Martin Creek)의 수로 바로 아래 작은 못에서

35) David C. Kress, 「*Cadent silence: Technology, figure, and ethics in contemporary literature*」,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1), p. 92.

플라이낚시를 한다. 화자는 미끈하게 생긴 9인치짜리 힘센 송어를 낚는다. 톰 마틴 하천 자체나 하천의 이름이 주는 좋은 느낌에 취해 화자는 더 멀리 걸어 들어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작은 하천을 걸어 올라가는 길에는 잎나무, 옷나무가 뺨뺨이 들어차 있고, 어디에도 낚시를 할 만한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할지 종잡을 수도 없다.

이 톰 마틴 하천에서의 이야기는 자연생태환경이 악화된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 화자가 낚아 올린 힘 좋은 9인치짜리 송어는 지금은 건져 올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계속해서 자연을 부당하게 착취해 나가면 자연도 더 이상은 내어줄게 없게 된다. 그래서 “때때로 골짜기는 아주 좁아 하천은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쏟아졌다”(sometimes the canyon was so narrow the creek poured out like water from a faucet)(19)와 같이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빈약한 모습의 하천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연이 주는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를 파괴하고 착취하려고 하면 결국 자연도 인간도 사라지는 종말을 맞게 된다. “길이 너무 험해 어느 길로 향해야할지 몰라 망연히 서 있어야 했다”(Sometimes it was so bad that it just left me standing there, not knowing which way to jump)(19)라고 말하는 화자가 처한 입장과 같이 브로티건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다 종국에는 고갈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 중에는 “송어가 헤이만 하천으로 올라온 마지막 해”(The Last Year the Trout Came up Hayman Creek) 편에 나타나는 인물인 찰스 헤이만(Charles Hayman)과 같이 외딴 곳에 홀로 삶을 개척한 “시원찮은 늙은이”(old fart)도 있었다. 헤이만이 1876년에 오막살이를 짓고 정착한 곳은 웬만한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않을 만큼 외지고 궁상맞은 곳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곳의 하천은 그의 이름을 따서 헤이만 하천(Hayman Creek)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헤이만은 스스로 커피, 담배, 술, 여자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만일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다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멧돌에 간 밀과 케일을 먹고 살았는데, 100파운드짜리 밀 한 자루를 사서는 직접 절구통에다 넣어 절굿공이로 갈았고, 오두막 앞에 심은 케일을 가꾸며 일생을 살았다.

헤이만의 삶의 모습은 미개척 상태의 자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음에도 보통 사람들이면 가까이할 만한 소비나 오락, 유흥을 멀리한 그의 모습은 인간의 손길에 의해 이용되고 황폐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연의 삶 그대로의 이미지이다. 헤이만의 삶의 모습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의 『개척자들』(*The Pioneers*, 1823)에 나오는 문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내티 범포(Natty Bumppo)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정진농은 내티가 “문명에 오염되고 파괴되지 않는 순수자연을 찾아 언제나 더 먼 서쪽으로 나아가는 자연인”이며, “자연을 이용하되 결코 남용하지 않는다는 그의 자연윤의 규범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³⁶⁾ 한마디로 내티는 무소유의 삶에서 자연을 착취, 훼손, 또는 파괴하는 일 없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연인의 모습이다. 내티가 사냥으로 생계유지를 한 것과 숲속 오막살이에서 인디언 존과 공동생활을 한 것은 “반문명적·반기술주의적”인 것으로서, “생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내티의 모습이 『미국의 송어낚시』에서 ‘헤이만 씨’로 재탄생되어 나타난다.

겨울에는 송어 몇 마리가 헤이만 하천에 보이기도 하지만, 초여름쯤이면 하천이 거의 말라붙어 물고기를 전혀 구경할 수 없다. 헤이만은 송어 한두 마리를 낚고는 절구통에서 갈아놓은 밀을 케일과 함께 날로 먹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늙어버려 더 이상은 일하고 싶은 맘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된다. 너무 늙어 보였던지 아이들은 그가 사악한 사람이라 혼자서 사는 것으로 알고는 그의 오두막 근처 하천까지 올라오는 것을 겁낸다. 헤이만은 일자무식이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글자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세상에서 읽고 쓰는 일만큼이나 아이들도 무가치 한 것으로 여긴다. 헤이만은 30년 동안 아흔 살은 되어 보이는데, 그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죽음이 찾아온다. 그가 죽은 해에 헤이만 하천에는 송어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의 죽음 이후 헤이만 하천의 모든 풍경은 황폐화되어 간다.

이러한 헤이만의 삶의 태도 중에 자연의 속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있어 자식을 두는 일이란 무가치한 일이었다. 헤이만 씨는 읽고 쓰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란 꼭 마찬가지로 것들이라고 생각했다”(The last

36) 정진농, 「미국소설에 나타난 자연관」, 『새한영어영문학』 31(1994), p. 156.

37) 정진농, 「쿠퍼의 『개척자들』-생태학적으로 다시 읽기」, 『문학과 환경』 1(2002), p. 151.

thing in the world he had any use for were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and children were all the same, Mr. Hayman thought)(27-28)에 나타나는 헤이만의 사고는 편협하고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삶의 자세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자연에 속한 모든 생물이 생성·변화·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런 자연의 순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이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인간과 자연이 상호공생하는 연결고리는 끊어진다. 이는 곧 더 이상 창조의 불꽃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음을 의미한다. 헤이만 하천에서 송어가 사라져 버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헤이만 사후 하천의 황폐화를 통해 브로티건은 자연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를 얘기한다. 자연계는 순환 과정을 통해 새롭고 건강한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 그러나 헤이만은 글을 읽고 쓰는 일이나 아이를 갖는 창조적인 활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 순환적 흐름이 막힌 자연은 얼마 못가 활력을 잃어 시름시름 앓다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급기야 기능이 벗어버린 것이다. 송어가 다시는 돌아와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헤이만 하천을 헤이만이 죽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산림관청에서 하천을 살려보고자 송어를 방생했으나 “송어는 물에 닿자마자 하얀 배를 뒤집고 죽어서는 하천을 떠나려갔다”(no sooner had the trout touched the water, than they turned their white bellies up and floated dead down the creek)(28) 이를 통해 브로티건은 파괴된 자연의 원형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포트와인에 의한 송어살해”(Trout Death By Port Wine) 편에서 화자는 11인치짜리 송어 살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자그마한 아울 스너프 하천(Owl Snuff Creek)으로 친구와 함께 낚시여행을 간다. 목가적 자연 속에서 여유로워야 할 송어낚시 시간이 “최고 사형집행인”(the Supreme Executioner)에 의한 송어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방해받는다. 브로티건은 이 낚시를 함께 간 친구를 “최고 사형집행인”이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이 “상상”(imagination)이 아닌 “사실”(reality)임을 강조한다. 송어가 자연적인 혹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원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아보거나 들어볼 수 없는 방식으로 죽어간다. 브로티건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 질서에 반하는 죽음”(against the natural order of death for a trout to die by having a drink of port wine)(29)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 후에 하천으로 나간다. 화자의 친구는 그의 말이나 분위기로 보아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유형의 사람은 아니다. 낚시터에서 화자의 친구는 낚시에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저 화자가 낚시하는 모습을 뒤를 쫓으며 구경만 할 뿐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화자의 낚시에 입질이 온다. 화자는 붉은 줄무늬가 곱게 나 있는 무지개 송어를 건져 올린다. 화자는 친구에게 낚은 송어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친구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생각이 있다고 응수한다.

“내가 이놈을 죽이기 전에 적어도 죽음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겠어.
이 송어는 술이 좀 필요해.” (4-5)

화자의 친구는 포트와인을 꺼내 뚜껑을 열고는 송어의 입에 한 잔 정도를 부어 넣는다. 그러자 송어는 잠시 동안 경련을 일으킨다. 이어서 송어는 넓게 벌린 이빨을 딱딱 소리 내며 부딪히다가 움직임을 멈춘다.

과연 잡힌 송어가 목이 비틀려 생을 마감하는 것과 포트와인으로 고통스럽게 질식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비인간적인 처사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화자의 친구의 말대로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벌어진 그 과정에 있다. 분명 그 친구는 순간적으로 목이 비틀려 절명하는 것보다, 포트와인으로 질식해 죽어가는 동안 겪을 송어의 고통이 더 클 것임을 간파했거나 무시했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화자의 친구는 송어가 고통으로 요동치다 죽어가는 순간을 지켜보고 나서 “송어가 행복하게 죽었다”(It died happy)(32)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의 모습에서 잔인성과 정신적 황폐를 읽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송어에게 강제로 와인을 먹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이 자연생태계에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 두고 윤종국은 송어의 포트와인 질식사에 대해 상상력의 죽음 또는 상상력의 실패라고 말한다.³⁸⁾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인간적 상상력의 위험성을 잘 지적한

38) Chong-kook Yoon, “The Pastoral Imagination and Minimalism in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신영어영문학』 23 (2002), pp. 86-87.

해석이다.

작품 속에 거론되는 대부분의 지명이 실제 존재하는 곳들이지만 “Worsewick” 편의 위스윅 온천은 가공의 장소이다. 여기서 지명 “Worsewick”는 ‘더 나쁜 상태(worse)’와 ‘마을(wick)’의 합성이다. 그래서인지 이 공간은 상당히 불유쾌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판자 몇 개를 하천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대한 육조 같은 위스윅 온천에는 누군가 두고 간 낡은 신발 한 짝이 있다. 온천수는 썩 사이로 밝은 주황색 찌꺼기가 보이는 언덕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온천욕을 하려고 탈의를 한 화자의 가족에게 쇠파리들이 달려들었고, 온천장 가장자리에는 초록의 끈적끈적한 것이 있었으며, 온천수에는 수십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니고 있었다.

그 초록의 끈적끈적한 것과 죽은 물고기들은 우리와 함께 놀며 느긋하게 있다가 물이 넘치면서 빠져나가기도 했고 우리 주변에서 그것 들끼리 엉키기도 했다. (43)

이 묘사에는 죽음과 오염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화자는 이상하리만치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판자 몇 장으로 허술하게 형성되어 있는 온천장”, “신발 한 짝”, “밝은 주황색 찌꺼기”, “쇠파리”, “끈적끈적한 초록물질”, “배를 하얗게 드러내고 죽어 있는 물고기”, “오염된 환경에 대해 무감각한 화자” 등은 산업 폐기물이나 산업폐수 등에 의해 병들어 있는 또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의미한다. 아울러 산업화의 바람으로 날로 늘어가는 공장들에 의한 도시 오염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오염된 장소에서 화자는 끈적끈적한 초록 물질과 죽은 물고기들에 둘러싸인 채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다.

위스윅은 전혀 근사하지 않았다.

그때 난 절정에 이르렀고 영화에서 급강하해서 학교 지붕위를 지나쳐가는 비행기처럼 그녀에게서 재빠르게 빠져나왔다.

내 정액이 물속에 빠져나왔고, 빛에 익숙지 않아서인지 그것은 금새 뿌옇고 기다란 줄 같이 되어서는 유성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난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내 정액쪽으로 떠내려와서는 그 가운데로 들

어가는 걸 보았다. 물고기 눈은 강철처럼 굳어있었다. (44)

두 사람 모두 아이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 더러움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속에서 화자가 아내와 나눈 육체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친밀감의 나눔이 라기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현대의 편리한 생활상처럼 본능적 욕구충족을 위한 해소의 시간일 뿐이다. 이 행위는 생명 창조의 건강한 의식이어야 할 성행위의 타락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동시에 충격적인 죽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³⁹⁾

화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힘 좋은 컷스롯 송어(cutthroat trout)가 잘 잡히는 하천에서 등이 굽은 꼬추 송어를 잡았던 때를 회상한다. 꼬추 송어를 낚기 전 화자가 낚시를 하려고 자리한 곳에서 납작한 하얀 바위 하나가 유난히 화자의 눈에 띈다. 그것은 화자에게 어릴 적에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죽은 고양이를 연상시킨다. 연어 알 미끼를 꿰어 던진 낚시를 송어가 “덤썩!”(Wham!) 문다. 화자가 그 송어를 건져 올리는데 그 녀석의 힘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 건져 올린 그놈은 큰 흑이 달린 12인치짜리 무지개 꼬추송어였다. 화자는 옥수수 가루로 싸서 버터로 튀겨 요리한 꼬추송어를 저녁식사로 먹는다. 그 맛은 에스메랄다의 키스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화자가 본 죽은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납작한 하얀 바위가 주는 불길한 조짐으로 인해 이미 이 꼬추송어 이야기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테너(Tony Tanner)는 죽음이 병치와 연상의 관계를 통해 미국의 현시대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묵시적으로 전달한다고 말한다.⁴⁰⁾ 정상적이지 않은 송어임에도 예상과 달리 힘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은 변형된 생태계의 파괴적 힘을 의미한다. 브로티건은 화자가 잡은 흑이 난 송어를 통해 미국의 꿈과 정신이 급격한 기계 문명의 발전과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변형되어 기형화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계 대가족의 일원이었던 화자의 어릴 적 친구는 그 친구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들은 모두 밥벌이를 나간다. 탈장을 앓는 이 친구는 탈장치료는 고사하고 약에 의지할 형편도 못 된다. 하다못해 친구는 고통을 덜 방편으로 마신 클레이

39) 천승걸, 『미국문학과 그 전통』, p. 227.

40) Tony Tanner, *City of Words: American Fiction 1950-1970* (New York: Harper & Row, 1971), p. 406.

드에 중독이 된다. 어려운 환경 탓에 쿨에이드 한 봉지 값도 감당하기 곤란한 친구에게 쿨에이드 맛을 내는 데 필요한 설탕을 사는 것은 사치였다.

어느 날 화자로부터 한 봉지 값의 돈을 얻은 친구는 화자와 함께 쿨에이드 가루를 사러 항상 가는 가게를 다녀온다. 그리고 화자는 친구의 쿨에이드 제조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다.

내 친구네 집에 도착하자 의식은 시작되었다. 친구에게 있어서 쿨에이드를 만드는 일은 하나의 로맨스이자 의식이었던 것이다. 의식을 엄숙하게 빈틈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야 했다. (9)

친구는 구입한 포도맛 쿨에이드 가루 한 봉지를 본래 만들 수 있는 정량보다 물을 두 배 더 섞어—아껴 먹어야하기 때문에—아주 묽은 자신만의 진통제를 의식을 치르듯이 만든다. “그는 자신의 쿨에이드 현실을 창조해냈고, 그것으로 자신을 발산시킬 줄 알았다”(He created his own Kool-Aid reality and was able to illuminate himself by it)(10)에서 밝히듯, 가족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탈장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을 엄숙하고 정성스런 쿨에이드 창조 과정과 병치시킨다. 독일계 친구의 쿨에이드 창조 과정은 현실적 상황과 육체적인 아픔에서 벗어나는 그만의 경건한 시간이며 창조의 결과인 쿨에이드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속박에서 한 발짝 떨어져 꺾보지 못했던 또는 이를 수 없을 것으로 여기던 꿈과 이상을 맞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쿨리(John Cooley)는 어린 알콜 중독자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쿨에이드 중독을 통해 덜어내는데, 그 상처와 고통은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온갖 상처와 아픔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만의 쿨에이드 제조는 삶을 밝히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적 현실 창조를 위한 매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브로티건이 자연의 영향력 하에서 치유와 변화를 꾀하는 데 자연의 힘보다는 상상력의 힘에 호소하고 있다고 정리한다.⁴¹⁾

화자는 여행 경로에서 경제대공황과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 의사가 되기까지 25년이란 시간이 걸린 외과 의사—머리숱은 얼마 없어도 짧어 보이는—

41) John Cooley, “The Garden in the Machine: Three Postmodern Pastorals,” *Michigan Academician* 13.4(Spring 1981), p. 419.

를 만난다. 이 외과의사는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에 반감을 토로한다. 3년 전에 그는 유타주의 남부 어느 노동조합의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곳의 환자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필요하기만 하면 의사의 시간여건이나 상황은 무시하고 언제 어느 때든 의사를 찾는다. 이에 그는 의사라는 직업에 염증을 느낀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임을 알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친목가적인 이상을 실현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사냥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다. 불만족스런 현실의 삶에 위축되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찾아 분연히 탐색의 여정에 오른다.

화자를 만난 그 의사는 여전히 가족과 이동 중이다. 이 의사는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아메리카”(for America, often only a place in the mind)(72)로 과감한 여행길에 있다. 이러한 외과의사의 모습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미국의 꿈의 추구와 연결된다. 그 의사가 찾아가는 새로운 장소는 그 자신의 미국의 꿈 탐색의 종착지가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과의사의 미지를 향한 여정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키우는 미국적 프론티어십의 표상이다.

어린 시절 화자가 북서태평양의 아흔 쯤 되어 보이던 할머니의 집일을 돕던 어느 날, 화자는 “할머니가 다락방에 올라가 물건이 든 상자들을 정리하고, 어떤 물건은 버리고, 또 어떤 것은 적당한 곳에 잘 정리”(She had me ascend to the attic and clean up some boxes of stuff and throw out some stuff and put some stuff back into its imaginary proper place)(83)해 달라는 요청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홀로 다락에 올라가 물건들을 둘러보며 세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오래된 트렁크 하나에 눈길이 간 화자는 그것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낚시용품들로 가득 차 있다. 낚은 낚시대, 릴, 줄, 부츠, 통발이 각각 여러 개씩 있고, 파리와 미끼 그리고 갈고리들로 가득 찬 금속제 박스가 있다. 갈고리 몇 개는 몇 년이나 몇 십 년은 되어 보이는 벌레가 끼워진 채로 있어서 이제는 갈고리의 일부로 보인다. 그리고 오래 묵은 미국의 송어낚시 갑옷도 발견한다. 비바람에 헤어진 낚시용 헬멧 옆에 있는 오랜 일기장 하나가 이것저것 살피던 화자의 시선을 붙잡는다. 화자가 전에 노파의 집 어디선가 노파의 동생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 전에 이상한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했다. 바로 그 사람, 알론조 하겐(Alonso Hagen)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매해

그가 여행한 낚자와 놓친 송어의 숫자가 적혀 있고, 한번 여행 때마다 평균적으로 놓친 송어의 수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1891년부터 1897년까지 7년간 그가 여행한 총 160회의 송어낚시 여행 동안에 그가 놓친 송어는 총 2,231마리였고 놓친 송어의 수는 평균 13.9마리였다. 바로 다음에는 알론조 하겐의 미국의 송어낚시를 위한 비문(Trout Fishing in America epitaph by Alonso Hagen)이 이어져 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7년간 내내 낚시를 다녔고 송어 단 마리도 낚지 못했다.
내 낚싯바늘에 걸린 송어는 모조리 놓쳤다.
그것들은 펄쩍 뛰거나 몸을 비틀어대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내
그물을 끊거나 퍼덕거리며 물로 튀어버리거나 무는듯하다가 얼른
도망쳐 버렸다.
난 송어에 손 한번 대어 보지 못했다.
이 모든 좌절감 속에서도
난 믿는다.
놓쳐버린 송어를 모두 두고 보면 흥미로운 실험임을.
그러나 내년에는 다른 누군가가 송어낚시를 가야만 할 것이다.
그 누군가가 그곳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85)

알론조 하겐에 의해 드러나는 송어낚시에 대한 끈질긴 추구와 송어낚시가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은 미국인의 순수 이상주의에 대한 열정과 집착을 보여준다. 이 비문의 내용은 비록 순수 이상주의의 꿈이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로 인한 절망과 좌절이 계속되더라도 결코 그 본래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의 샌프란시스코에 우울한 겨울이 내려앉았다. 화자는 아내가 쉬는 날 없이 일요일 아침에도 8시에 직장으로 나가고 난 후부터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에 대한 공상을 한다. 그의 공상 속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저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가 아닌 사우스 밴드 낚시용품 회사(South Bend Tackle Company) 직원으로 로즈버그(Lordsburg)나 뉴멕시코(New Mexico) 아니면 윈체스터(Winchester)나 버지니아(Virginia) 같은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미국사람이다. 화자의 상상의 나라 속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국의 송어낚시를 위한

새로운 회전 낚시 미끼를 고안한다. 가장 먼저 상상력의 힘을 쏟아 붓고 금속재료와 안료 그리고 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붙였다 뗐다 다시 가져다 붙였다 하더니 마침내 미끼 하나를 발명해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손에 들고 있는 미끼에다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몇 달도 채 안 되어 그의 최후의 만찬은 20세기에 선풍적 인기를 끄는 상품이 된다. 송어가 없는 바티칸 교황청에서조차 만 개를 주문하는 지경이다. 서른 네 명의 미합중국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난 ‘최후의 만찬’으로 지금까지의 기록을 갱신 했어요”(I caught my limit on ‘The Last Supper’)(108)라고 증언한다.

브로티건의 상상력은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그의 작품 속으로 데리고 와 그의 송어낚시를 위한 굉장한 미끼를 만들어 내도록 만든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이제 미국사람이다. 미국인으로 미국 땅에서 미국의 꿈을 낚기 위한 기발한 미끼를 고안해냈다. 이렇게 브로티건은 순수 이상주의와 파괴된 자연을 회복할 힘의 원천으로 상상력을 제시한다.

화자에게 황금펜촉을 달고 있는 만년필을 보여준 남자는 완전히 빈털터리였을 때 조그만 회사에 고용되어 오리건(Oregon)주 동부의 체몰트(Chemault)에서 크리스마스나무 베는 일을 시작한다. 이 남자는 눈이 내리는 겨울 산에서 나무를 베고, 영양가 없는 요리를 해 먹고, 낡은 공군 점퍼를 입고 딱딱한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잔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여자란 열다섯 살짜리 쌍둥이 딸을 둔 인디언여자뿐이다. 그는 이 인디언여자와 잠을 잔다. 나무를 가지고 오클랜드의 회사로 가보니 회사는 그가 해 온 나무를 팔아야만 그에게 일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실정이다. 가까스로 나무가 팔리고 돈을 지급받은 그는 좋은 식당으로 가서 괜찮은 식사와 술을 먹고 나서 흑인창녀를 구해 호텔에서 묵는다. 다음날 그는 고급 문구점에서 30달러짜리 황금펜촉 만년필을 산다. 그것을 화자에게 보여주며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걸로 써, 그렇지만 예민한 황금펜촉이 달려있으니 힘줘서 쓰면 안 돼. 시간이 좀 흐르면 작가의 성격을 닮아가게 되어 다른 누구도 그것으로 글을 쓸 수 없게 되지. 이 만년필은 마치 쓰는 사람의 그림자와 같아져. 소유할만한 유일한 만년필이야. 그렇지만 주의해야 되네.” (110)

자연이 준 나무를 베어다가 도시번화가로 가서 물질적 혜택을 누린 이 남자는 황금펜촉이 달린 만년필을 화자에게 주며 쓰는 사람의 성격까지 닮아버리는 민감함에 대해 주의를 준다. 이에 대해 화자는 다음과 같이 혼자생각에 잠긴다.

미국의 송어낚시 황금펜촉이 종이위에 눌러면서 만들어지는 강변을 따라 늘어선 시원한 초록 나무들과 야생화와 검은 (송어)지느러미 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110)

화자는 황금펜촉에 의해 되살아날 이상주의의 꿈과 원초적 자연의 모습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브로티건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끼창작 과정을 통해 상상력이 시작점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처럼, 미국의 송어낚시 황금펜촉 이야기에서는 작가에게 필요한 상상력의 중요성을 명징하게 나타내고 있다. 스틸은 브로티건이 미국이라는 에덴동산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상상력 속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왕국이 존재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다.⁴²⁾ 다시 말해서, 브로티건은 상상력이 가미된 자연의 숲과 강가에서 현대의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와 물질만능의 생활환경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소중한 진정성 있는 순수 이상주의의 꿈을 되찾아야 함을 바로 옆에 앉아서 중얼거리듯 전하고 있다.

42) Stul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p. 80.

V. 결 론

화자가 바라다 본 미국사회의 모습에는 과거 조상들이 갈구하고 향유했던 참다운 목가적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이 온데간데없다. 분명 과거에는 순수한 미국의 꿈이 미국적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가장 먼저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이 발견된 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신화적인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며, 계급에 의한 사회적 억압과 물질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들고 먼 길을 헤치며 ‘약속된 천국’을 찾아 신세계로 건너온 청교도적 이상낙원의 꿈이 있다. 청교도인은 직업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근면과 검약의 삶을 통해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잃어버린 낙원의 복원을 꿈꾸었다. 그리고 제한적이던 지리적 생활의 반경을 도전정신과 모험심으로 넓혀 나간 변경개척자들의 개척정신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럽국가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적 이상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기도 했던 건국조상들의 꿈이 있었다. 이 모두가 건강한 꿈의 추구이자 그러한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화자가 어린 시절에 목격하고 경험한 자연의 모습 중에는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 존재했다. 그것은 자연의 생생한 초록빛 싱그러움 그리고 그 안의 목가적인 여유로움이었다.

현대의 물질문명과 기계과학문명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많은 제약에서 해방시켜주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부작용과 상실을 가져왔다. 먼저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비인간화시키고, 상대를 이용하여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을 갖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일부로 편중되어버린 부는 다른 편에 속한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장벽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의식과 이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구속되고 권리가 상실되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이상의 부작용들은 차치하고 인간문명에 의한 가장 큰 부작용은 순수했던 미국의 꿈의 상실이다. 미국문학의 전통을 이어 온 미국의 꿈은 브로티건의 『미국

의 송어낚시』에서 ‘송어낚시’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송어는 미국의 하천에 가장 많이 사는 물고기이며 북미대륙에 꽤 흔찮은 송어낚시터가 산재해 있다고 한다.

어른이 된 화자의 눈에 미국인의 삶과 자연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되어 나타나난다. 자연환경은 놀랍도록 변화되어 ‘송어낚시’ 여행을 떠나는 화자는 좋은 낚시터를 찾아보기 힘들고, 프랭클린이 약속한 근검과 검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무료 배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상상력과 창조의 힘을 불살라야 할 예술가들은 술주정뱅이로 전락하여 그저 삶을 지탱하기 위해 먹고 살 묘수만 궁리한다. 그나마도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궁여지책을 두고 취중에 심각한 논의를 벌인다. 게다가 밤과 낮 생활이 극과 극을 보이는 표리부동한 정치인은 무자비한 살생을 일삼는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기관인 FBI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감시해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 물질적인 부를 취한 계층이나 힘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없는 이들을 더욱 착취한다.

화자가 목격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정신과 사회에 안겨 준 물질주의의 늪에 빠져 지낸다. 강철이 된 송어에 목말라 하며 오로지 물질이란 허상만을 쫓다 보니 몸은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와 같이 육체적 불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구자가 되어 간다. 자연과 일치를 이루며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정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물질적 탐욕에 빠져 자기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기에 이른다. 산업화의 진전은 강철과 같은 원료를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어 자연을 파헤치고 고갈시키는 일을 자행해 왔다.

브로티건의 페르소나인 소년화자가 처음으로 송어낚시를 시도한 날에 송어하천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중에 소년이 발견한 것은 ‘하얀 나무계단’으로 변한 폭포였다. 인간의 문명이 자연산림을 침범하면서 자연의 생명적 순환이 방해를 받고 이어서 생태계의 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숨을 쉬는 코요테와 같은 동물들까지 청산칼리 캡슐을 먹고 죽어 자기 고유의 서식지를 인간에게 빼앗겨야 하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자연을 닮아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다 간 헤이만 계곡의 헤이만 씨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그가 삶에서 남긴 오류는 글을 읽고 쓰는 일과 아이들의 무가치함을 믿은 것이다. 사실 그의 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의 사후 헤이만 계곡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새로운 생명을 이식하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완전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청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미국의 꿈이란 유산은 산업문명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물질적 성공의 꿈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물질적 부의 추구는 인간의 건강한 정신적인 꿈을 잃게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건강한 미국의 꿈을 회복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브로티건은 정확히 언급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서사구조방식이 그러하듯 『미국의 송어낚시』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신 열린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를 'I'가 캠프여행 중에 만난 외과의사에게서 얻을 수 있다. 외과의사는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꿈인 사냥과 낚시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선 중에 'I'와 우연히 조우한다. 그 외과의사는 현재와 타협할 수 없는 삶에 구차하게 얽매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미국”(for America, often only a place in the mind)를 향해 떠난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미국이란 허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외과의사로부터 중요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미국의 꿈의 탐색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과의사의 꿈의 탐색 노력은 절대로 현실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자기답게 하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노력이다. 그리고 그의 꿈의 탐색은 오염되지 않은 이상향을 찾아 끊임없이 미지의 서부를 개척하는 프론티어십의 상징이다.

『미국의 송어낚시』는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현실에서 도피해서 이상향을 찾아 모험을 전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독일로부터 이민을 와 탈장으로 고생하던 어린 시절의 불우한 친구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 너무나 가난한 이 친구는 5센트짜리 쿨에이드 한 봉지를 'I'의 돈으로 구입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쿨에이드 제조라는 낭만적 의식이 엄숙하게 치러진다. 본래 만들 수 있는 정량의 두 배의 물에 섞어 만드는데 설탕을 첨가한다는 것은 사치이다. 이 아픈 소년의 쿨에이드 제조 의식을 브로티건은 “그는 자신만의 쿨에이드 현실을 창조해냈다”(He created his own Kool-Aid reality)(10)라고 기술한다. 브로티건은 이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인간의 창조정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꿈의 원형은 다름 아닌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국’이자, 현실에서

아주 새로운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내어 현실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소년의 “쿨 에이드 현실의 창조” 정신이며, 이는 곧 ‘미국의 송어낚시’가 추구하며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미국의 꿈이다.

‘미국의 송어낚시’의 탈바꿈은 점점 현실에서 부딪히는 방해를 해소시키면서 동시에 정신적 삶의 추구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바로 그것은 브로티건의 페르소나 ‘I’의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 미끼의 발명과정과 그 결과물이며, ‘I’의 친구인 높은 설원에서 나무를 베어다 파는 ‘He’가 사서 써보라고 내어 준 사랑스러운 “미국의 송어낚시 펜촉”(Trout fishing in America Nib)이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워싱턴스퀘어에 있는 프랭클린 동상 앞에 모여 든다.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이 없는 바티칸에서도 주문할 정도의 “최후의 만찬” 미끼이며, 생생한 강과 강가의 야생 식물들의 모습을 그릴 “미국의 송어낚시 펜촉”이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미국의 송어낚시’를 잃어버리는 일 없이 또는 잊지 않고 얼마나 내면을 밝히며 (illuminate) 살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숙고해 볼만하다.

비록 물질적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어둡고 그늘진 곳이 많지만 그래도 인간의 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교도 조상들이 꾸었던 순수한 이상주의의 꿈, 본래의 아름다움과 울창함을 대부분 상실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자연,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찾아 발걸음을 계속 옮기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한 브로티건이 찾고 싶은 순수 이상주의와 자연 회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이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Bibliography

1. Text:

Brautigan, Richard. *Trout Fishing in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0.

2. References:

고지문. 「각성과 의식개혁 강조-미국에서 송어낚기를 근거로」. 『영어영문학 21』 22.2(2009): 5-30.

김성곤. 『탈모더니즘시대의 미국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1989.

_____. 『미국 현대문학』. 서울: 민음사, 1997.

김은형.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과 미국혁명: 새로이 정의되는 미국의 정체성」. 『19세기 영어권 문학』 16.2(2012): 29-60.

김정훈. 「The Great Gatsby에 나타난 에머슨적 American Dream의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로드 W. 호턴, 허버트 W. 에드워즈. 『미국문학사상의 배경』. 박거용 옮김. 서울: 터, 1991.

류회명. 「1960년대 미국 보수주의의 성립 배경 연구-YAF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리처드 브라우티건. 『미국의 송어낚시』. 김성곤 역. 서울: 비채, 2008.

박병주. 「미국의 송어낚시에 나타난 생태의식」. 『현대영미소설』 9.1(2002): 87-113.

안정은. 「Walden에 나타난 Henry David Thoreau의 이상사회 추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양병탁. 『미국문학서설』. 서울: 탐구당, 1984.

정진농. 「自然과 文明의 葛藤(I)—James Fenimore Cooper의 The Pioneers에서」. 『釜山

- 大學校 人文論叢』 20.1(1981): 133-148.
- _____. 「미국소설에 나타난 자연관」. 『새한영어영문학』. 31.(1994): 153-181.
- _____. 「쿠퍼의 『개척자들』 -생태학적으로 다시 읽기」. 『문학과 환경』 1(2002): 144-165.
- 존 갤브레이스. 『풍요한 사회』. 노택선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6.
- 천승걸. 『미국문학과 그 전통』. 서울: 서울대학교, 1985.
- Bradbury, Malcolm. *The Modern American Novel*. Oxford: Oxford UP, 1984.
- Cooley, John. “The Garden in the Machine; Three Postmodern Pastorals.” *Michigan Academician*, 13.4(Spring 1981): 405-420.
- Degeler, Carl N.. *Out of Our Pas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0.
- Karl, Frederic R.. *American Fiction 1949-1980*. New York: Harper & Row, 1983.
- Kress, David C. *Cadent silence: Technology, figure, and ethics in contemporary literature*.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1.
- Schmitz, Neil. “Richard Brautigan and the Modern Pastoral.” *Modern Fiction Studies* 19(Spring 1973): 109-25.
- Shin, Doo-ho. *The Aesthetics of Indeterminacy: A Meeting Ground Between Postmodernism And Eastern Mysticism And Selected Novels By Tom Robbins, Richard Brautigan, And Rober Pirsig*.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Stull, William 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American Literature*, 56.1(March 1984): 68-80.
- Tanner, Tony. *City of Words: American Fiction 1950-1970*. New York: Harper & Row, 1971.
- Yoon, Chong-kook. “The Pastoral Imagination and Minimalism in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신영어영문학』 23(2002):
88-99.

<http://www.chicagotribune.com/news/politics/chi-chicagodays-johndillinger-story,0,7770658.story>

<http://www.uncp.edu/home/canada/work/allam/17841865/history/science/lewclark/>

http://en.wikipedia.org/wiki/German_American

<Abstract>

Dream of Restoration of Naive Idealism and Nature
in *Trout Fishing in America*

Inhee Ka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ongmin Byeon

Trout Fishing in America (1967) is not just a lyrical pastoral novel as the title reveals itself. It consists of a number of 1960s' counterculture elements. The writer, Richard Brautigan (1935-1984), covered the matters of his time. The novel is composed of forty-seven short stories not closely connected to one another, but "Trout fishing in America" as both the material and the theme penetrates the work. This motif transforms its appearance as a person, place, or thing repeatedly. Consequently the persona meets a trout stream it has sought.

The Washington Square of San Francisco is a main spatial background. The Benjamin Franklin statue seemingly beholds his descendants as if saying, "You can have material success, fame, and power if you are thrifty and sincere." In this world of capitalism, more and more people try to enjoy material abundance and convenience. Yet, on the other side, a great number of people struggle in relative poverty and poverty-stricken conditions. Many, therefore, are led to mental poverty. Many turn to nature to soothe their hurt, but nature itself is suffering from selfish exploitation. In "The Cleveland Wrecking Yard", the 43rd story in this novel, Brautigan depicts the vivid images of exploited nature under the capitalist system through his afflu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3.

imagination. It appears that anything in nature can be sold as various types of units. The intention of the writer is to accuse the absurdity of human desire to use nature according to a person's materialistic needs.

In the novel, "I" keeps traveling in pursuit of recovering American naive idealism and nature. Through *Trout Fishing in America*, Brautigan wants to restore the following ideal images of American dreams: First, religious idealism harbored through/by aspiring to achieve spiritual liberation. Second, dreams of success that anyone can achieve wealth and fame at the cost of effort. Third, dreams of the frontier which inspire people to keep moving towards new ideal places. Finally, pastoral landscapes of Mother Nature that are taken for granted. However, in reality seeing those images is impossible, which is the reason "Trout fishing in America" is wandering in agony. Consequently, Brautigan wishes to restore those archetypal images in realities of life through creative imaginings. In short, *Trout Fishing in America's* ultimate message can be said as "Make your American dreams come true through your creative imaginations."